

인생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깨닫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온 힘을 기울이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시편 127편 3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2월 20일 (토) 제 1814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생명 존엄성 지키기 위한 **실링 문화**로!

미 언론, '로 대 웨이드' 판결후 전쟁 중인 낙태문제, 바이든 집권으로 친낙태로 선회 보도

낙태의 합법 여부는 지구촌의 오래된 논제다.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며, '하나님의 섭리' 대 '인간'이라는 종교적 관념의 결전장이기도 하다. 여기에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이념이 덧붙여지고, 여성인권운동과 의료계의 이해관계까지 맞물리면서 동성혼 합법화와 함께 전 세계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 잡았다.

지난 오바마 행정부가 8년 동안 집권하면서, 낙태는 여성 고유의 침범할 수 없는 권리로서 자리 잡을 정도로 태아의 생명보다 우선시되는 차원으로까지 격상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

관을 차지하면서 여성의 권리보다는 생명이 최우선시 되는 반낙태 정책들을 펼쳐 주 정부가 이를 관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을 3명이나 지명해 사법권을 보수 절대 우위 양상으로 만들어 최근 대법원은 반낙태 성향으로 최근 낙태 소송들을 판결하고 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 등장으로 전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했던 반낙태 정책들이 사문화되고 있어 보수주의 진영에서는 이를 극복할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이 "일률적인 낙태 처벌은 위헌"이라며 여성의 임신중절을 헌법적 권리로 최초 인정했다. 제소인과 검사 이름을 딴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Roe v. Wade) 판결은 이후 미국 사회에서도 큰 논쟁으로 이어졌고 미 정치권에서는 선거공약으로 언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나는 생명을 존중한다. 생명을 존중하는 법관을 임명할 계획이며 주 정부가 낙태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제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낙태죄 폐지 이슈는 대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종교계는 대체로 생명 존중의 종교적 가치를 들어 '태아부터 생명체로 봐야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유지한다.

현재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1개국에서 사회·경제적 이유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유럽은 시민 주도의 낙태죄 폐지 운동을 시작으로 낙태관련법 개정까지 이어지면서 임신중절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분위기다.



자기결정권 v, 생명권 하나님의 섭리 v, 인간 진보 v, 보수 정치이념 여성인권운동, 의료계 이해관계

반면 미국은 낙태에 대한 시각이 주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최근 BBC에 따르면 폴란드에서는 낙태 허용여부가 최근 쟁점이 됐다. 폴란드 집권당은 산모의 건강이 위태로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 강간 등 원치 않는 임신도 포함할 정도로 수위 높은 금지다.

일본은 임신중절을 위해서는 전문가 2인의 승인 및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다. 임신 22주 이내엔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시술이 합법화되었다. 낙태시술 지정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병원이 이를 정부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중국도 임신 12주 내 본인 요청에 따른 시술은 허용한다. 그 이후로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해 폭넓게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산아제한정책 때문에 낙태가 자유롭지만 성별에 따른 선택적 낙태는 금지돼 있다.

영국은 임신부가 원할 경우 2명의 의사 의견이 있다면 24주까지 임신중절이 가능하다. 낙태허용 사유로는 모체생명보호를 비롯해 모체 신체·정신적 건강, 경제·사회적 사유, 본인 요청 등으로 폭넓다. 육체·정신적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경우 24주 이내, 임신부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경우는 주수에 상관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은 태아의 생명권이 산모의 자유보다 우선시 돼 낙태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중 한 곳이다. 다만 독일은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불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의사에 대해 시술하는 12주 내의 인공임신중절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의 낙태권을 보호하는 연방법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는 연방 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혀도 낙태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뜻이다.

(3면으로 계속)



SNS 없이는 못 사는 인간으로 변형!

라이프웨어시치, 소셜미디어 조작맞서기 위한 크리스천 '지혜' 요구되는 이유 소개

정보는 넘치지만 지혜의 기근 속에 사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가 처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갇혀 있다시피 한 일상에서, 각종 기계를 통해서 쉬지 않고 정보를 습득하는 우리는 거의 항상 온라인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럴수록 보다 지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또한 지혜의 마음을 가꾸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깊은 집중에 필요한 뇌 근육은 점점 더 약해진다. 정크푸드로 머리를 채우는 우리에게 이제 솔로몬 왕의 충고(잠4:5-9)를 들을 마음도 또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다.

라이프웨어 리서치에서 신학과 커뮤니케이션 담당이자 휘튼대학교 방문교수인 트레빈 왁스(Trevin Wax)는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 소개를 통해 첨단기술은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켰지만 동시에 조절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말한다(Why 'The Social Dilemma' Matters).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전자 기기와 SNS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과도한 "스크린 타임"이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스크린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애초에 인간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inform) 만들어진 게 아니라 SNS이 없이는 아예 살 수 없는 인간으로 바꾸기 위해(deform) 만들어진 SNS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시간을 보

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그것도 심각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이런 앱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의 여부다.

그래서 나는 새로 나온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The Social Dilemma)'가 화제가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 다큐는 소셜 미디어의 심리학을 다루는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리고 유튜브 등의 회사들의 본질이 무엇인지(그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광고를 하는지, 4면으로 계속)



시론 이동진 목사



부른초장 이기성 목사



세기언 독후감 전효진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jcbook-usa.com / cjpb191@jcbook.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미주복음방송 개국 30주년
은혜로 빛으로 30년
with Grace into Light

3월 11일(목) 10am-12pm
4월 22일(목) 9am-6pm
7월 17일(토) 7pm-9pm
10월 29일(금) ~31일(주일) 7pm-9pm

실시간 라이브 및 유튜브 채널 생방송!
GBC 개국 30주년 감사예배
장소: 은혜한인교회

나눔On 캠페인 특별 생방송

관객들을 위해 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콘서트
'This is Korea!'
장소: Walt Disney Concert Hall

제 10회 GBC 복음성가 경연대회 & CCM 찬양제

SINCE 1991 **30th Anniversary GBC** 미주복음방송

발행인 칼럼

안녕, 로템나무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곰곰이 생각해보니 연초(年初)부터 그랬다. 나의 모습이 로템나무 아래 초라한 엘리아 같았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사실 그 세상 소리는 내 내면의 소리였다. 그 소리는 바로 이것이었다. "지쳤다." 그렇다. 번아웃(burn out)까지는 아니었지만 영적침체는 분명했다. 기쁨은 흐르지 않고 평안은 마른 것 같은 날들이 계속되었다. 그런 날들이 더 계속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늦지 않게 찾아와 주셨다. 그런데 고난을 가지고 찾아 오셨다. 물론 의미 있는 고난이었고 또 고난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었다. 입을 열면 마실 수 있는 은혜의 샘물을 가지고 오셨다.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도 가지고 오셨다. 따듯하게 다시 보듬어 주시고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셨다. 끝이 중요하다. 내가 왜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둘 수 없는 로템나무 아래에서 더 머무러 리겠는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그래서 나는 주저 없이 말했다. "안녕, 로템나무"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셨던가. 반전(反轉)이 없는 소설을 읽으신 적이 있으셨던가. 만약 그런 20부작 드라마를 보고 그런 다섯 권짜리 연재소설을 읽었다면 공연(空然)히 보았으니 내 시간 내놓으라, 내 돈 내놓으라고 손해청구도 불사(不辭)할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up down이 없는 인생은 없다. 물론 그런 신앙생활도 없다. 크고 작은 영적침체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로템나무 아래를 영적침체의 자리라 할 수 있다. 로템나무 이야기는 화려한 갈멜산 이야기와 놀라운 호렙산 이야기 사이에 어두운 골짜기처럼 자리 잡고 있다. 로템나무 아래는 "내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곳이다. "다시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제 끝내고 싶다"는 내면의 외침이 제법 그럴 듯 들리는 자리이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데 스스로 "끝"이라고 선언하는 로템나무 아래는 결코 오래 머물 장소가 아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드라마와 소설의 주인공처럼 이런 새로운 반전을 선언하자. "안녕, 로템나무"

화장품의 역사는 얼마나 되었을까? 그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같다. 화장품은 진정한 자기 모습을 숨긴다. 화장은 자기의 못남과 약점에 거꾸로 "beautiful"이라는 찬사를 받아내는 놀라운 기술이다. 에텐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옆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감추었다. 최초의 화장품(化粧品)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로템나무는 확연히 인식할 수 있는 갈멜산과 호렙산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것으로 위장된 로템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의심, 절망, 열등감,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왜곡된 자아상을 슬쩍 감추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고 지내는 자들이 많다. 조금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꽤 좋아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일들도 있다. 직분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대단한 척 하고 마음에도 없는 헌신의 시간을 속절없이 보내는 자들도 있다. 모두가 위장된 로템나무이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먼데 어찌 로템나무를 다른 나무인 것처럼 감추고 그 길을 걷겠는가. 우리는 위장과 화장으로부터 진정한 우리 자신을 다시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용기를 가지고 다른 나무처럼 서있는 로템나무에게 이렇게 말하자. "너 로템나무 맞지? 나는 진정한 나를 찾고 싶어. 나를 그만 힘들게 해. 이제, 이제는 너와 헤어져야겠다. 안녕, 로템나무."

외로움 벗 삼아 영적 성숙 이룬다!

TCG, 러스티 맥키 목사가 전하는 강요된 고립 통한 영적성장 노하우 소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듯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너무 힘들어 하며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기간이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에게는 꿈에도 그리던 시간일 수도 있다. 이들이 SNS에 올린 우스운 사진도 여러 장 봤다. 다른 사람과 관계하며 유지되던 우리의 삶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멈춰졌지만 대인관계를 부담스러워하던 이들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히려 편안한 시간이 된 것이다. 격리기간이라 해도 아픈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취약계층에 있는 이들을 보살피겠지만 집 안에 머물며 그저 넷플릭스를 보게 돼 아주 신이 난 사람들도 있다. 러스티 맥키(the founding and lead pastor of Sojourn Community Church in Chattanooga, Tennessee) 목사는 오히려 팬데믹 상황이 강요하는 고립/외로움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바른 길을 말해준다(Leverage Your Loneliness).

이해는 한다. 목사로서, 어린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내 삶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혼자 있는 시간, 그 아름다운 고독(solitude)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꿈꾸게 된다.

하지만 혼자서 누리는 자유의 시간, 그 초반의 흥분이 가시고 나면 외로움을 느낀다. 사람들이 그림자. 내가족, 친구, 그리고 교회처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보고 싶다. 이런 패턴이 앞으로 또 얼마나 오래 계속될지 알 수가 없다.

복잡한 사회에서 벗어나 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대규모 전염병(pandemic)으로 번진 것은 아닐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사회적 삶이 완전히 바뀌었

더욱 전심으로. 또한 더욱 희생적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랐다(눅 5:16). 우리 영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듣기 위해서는 고독과 침묵이 꼭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날들이 있어 첫 번째 관문은 우리가 만날 고독의 처소를 시끄러운 곳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간은 하나님과 차별하고 고요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온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시46), 하나님께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초대 예수님과 관계 발전시켜야... 외로움은 타인의 삶에 동참할 기회 다시 만날 그날까지 고독의 장소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 만나자

자 있게 되면 처음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자신이 너무도 바쁘게 살아왔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TV 프로그램을 보며 웃고, 평소에는 결코 사먹지 않았던 즉석식품을 쌓아놓고 즐긴다. 고립이라는 햇빛 아래에서 일광욕을 즐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 늘어난 걱정, 우울, 그리고 인간관계를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힘들게 될 것이다. 외로움이라는 유행병(epidemic)은 벌써 퍼져가기 시작했다. 우리 문화의 외로움이라는 유행병이 "

강요된 외로움

많은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고문 방식은 그냥 홀로 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듣거나 보지도 않는 영상을 틀어서 소리가 나도록 한다. 아니면 바빠 움직여서 혼자라는 사실을 잊게 한다. 우리의 일정이 다른 사람과 만남으로 채워지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장기간 서로 격리된 상태로 지내라고 권고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제까

다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 침체를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 침체"를 다룰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

스스로 외로운 곳을 찾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외로운 상황이 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귀하게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으로 의도된 것을 기적적인 선으로 바꾸신다(창50:20; 롬8:28).

혼자만의 자리 만들기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나아가야 한다. 잠잠히 기도하며 그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이것이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대규모 전염병 뒤에 숨겨져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난관, 염려, 그리고 외로움으로 인해 우울증이 심해질 수 있는 이들의 어려운 상황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어려움은 실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금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세상과는 잠시 담을 쌓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향해 담을 쌓아서는 안 된다. 두려움이나 무감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목소리들을 거부해야 한다. 대신, 선하고 주관적인 왕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고요하게 하자(시131).

(3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Joon Mo Myung, MD, a dermatologist and plastic surgeon.

Advertisement for Bethesda Dental, a dental clinic.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L.A. and N.Y. offices.

Large advertisement for the book 'a kids book about CHANGE' by David Kim, featuring a colorful graphic and promotional text.

생명 존엄성 지키기 위한 '살림 문화'로 나가자!

(1면에서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기금으로 낙태시술비용을 대는 것을 막았다.

실제로 그는 2019년 낙태시술을 하거나 환자들에게 시술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 연방가축계획기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그 결과 미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정부의 국제보건기금이 낙태시술을 하거나 낙태정보를 제공하는 국제 민간조직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 '멕시코시티 정책(Mexico City Policy)'도 승인하고 이를 확대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이 '멕시코시티 정책'을 폐지했다. 그는 또 세금이 낙태에 쓰이는 것을 금지한 규정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낙태 현장에서 일하는 허브 매커시 세이버스터크스(savethestorks.com) 이사장은 "미국은 주별로 낙태허용기준이 다른데, 임신 9개월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주도 있다"면서 "왕성한 생명운동의 결과 낙태클리닉이 줄어들고 있지만 낙태약을 써서 낙태할 수 있는 클리닉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커시 이사장은 "의료적으로 사람이 사망했다고 정의할 때는 심장이 멈췄을 때를 의미한다"면서 "배 속의 태아가 5-6주가 되면 심장이 뛰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많은 주에선 생명이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소중하다"면서 "낙태는 영적인 문제다. 교회는 낙태가 왜 죄이고 살인인지 생명의 가치를 적극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엘 고드시 하트비트인터내셔널(https://www.heartbeatinternational.org/) 대표도 "낙태를 인정하는 법은 오히려 여성에게 낙태하라고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준다"면서 "실제로 낙태 합법화는 임신의 책임이 있는 남성이 책임감을 버리게 하고 낙태를 촉구하는 부모에게 정당성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선

낙태를 경험한 여성 중 73%가 임신상태를 끝내려는 압력을 받은 적이 있으며, 50%는 그 압력 때문에 낙태를 결정했다고 한다"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은 강해 있고 핍박당하는 느낌을 받는데, 우리가 할 일은 이들에게 낙태가 유일한 선택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낙태클리닉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미혼모의 출산을 돕는 단체가 4배 이상 많다"면서 "생명의 출산을 축하해주고 양육을 지원하는 단체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부탁하고 있다.

결론으로, 낙태를 연방법 차원으로까지 격상시키려는 바이든 정권 아래에서 어떻게 하면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할 수 있는가가 크리스천들의 사명이자 사역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장이 뛰고 있는 생명을 죽여버리는 여성의 권리를 지키려는 '죽임의 문화'에서, 오히려 생명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엄마와 아기를 돕는 '살림의 문화'로, 미국 사회는 유지되어야 한다!

외로움 벗 삼아 영적 성숙 이룬다!

(2면에서 계속)
영혼의 필요 채우기

우리가 외로움을 겪는 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관계에 대한 열망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삶을 부인하고 광야로 들어가 고립되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가 겪는 외로움은 애통해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볼 기회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해 망가진 이 세상을 애통해한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음에 이르는 이 무자비한 상실로 슬퍼한다. 우리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 가득한 두려움과 염려로 애통해한다. 더 이상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어갈 수 없음을 애통해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 된 이들과 함께 모일 수 없음을 애통해한다. 이 대규모 전염병을 슬퍼하고 이 병이 초래했고, 앞으로도 초래할 끔찍한 결과에 대해 마음 아파한다. '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하며 우리는 울부짖고 애통해한다.

이 외로움은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동참할 기회다.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깊어진 우울과 염려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한다.

마지막으로, 이 외로움은 다른 이들의 삶에 동참할 기회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영성과 관계성을 현대 기술이 완전히 제공해줄 수는 없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

고독의 장소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면 우리 영혼의 필요가 채워지고, 다른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영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우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고후5:14-20).

매일 교회 친구 한 명,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한 명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다면 어떻게? 마트에서 사다줄 것이라도 있는지 물어보는 쪽지를 이웃집 문에 남겨두면 어떻게? 당신이 어떤 이를 위해 그런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손으로 직접 쓴 쪽지로 건네준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변화될까?

다시 만날 그날까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모르겠지만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는 슬프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함께할 수 있는 날을 벌써 고대하고 있다. 우리 앞에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긴가민가 길이 놓여 있지만 나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다. 예수께서는 어떠한 친구, 형제, 또는 연인보다 가까이 계신다. 이 모든 혼란과 단절 속에서도 그는 우리를 붙들신다. 예수께서는 선한 목자시다!

내가 또한 믿는 것은 교회는 분명히 다시 모일 것이라는 사실이다. 내향적인 사람들을 포함해 우리는 모두 다시 만나서 더 크게 노래하고, 더욱 큰 미소로 인사할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더 이상 위험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로 인해 기쁨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이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고독의 장소 '밖으로' 도망치기보다 그 '안으로' 들어가 거기 계신 예수님을 만나자. 다시 만날 그날까지,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자. 대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자. 그리고 이 대규모 전염병은 하나님이 창조 역사에서 쓰셨던 혼돈의 잘나 같은 것이므로 그 날이 오면 이 병은 우리를 더는 위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소망하자.



시론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우리는 상대적 거리개념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장거리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넌센스 퀴즈의 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리'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인터스텔라(Interstellar), 이 말은 'inter(~사이에)'라는 라틴어 전치사 '인테르(inter)'와 'star(별)'의 라틴어 명사 '스텔라(stella)'가 합쳐진 단어로 '별과 별 사이의'라는 뜻으로 우주공간의 먼 거리를 일컫는 단어이다. 이 거리는 상대가 없는 절대적 거리이다. 2014년에 개봉한 영화 '인터스텔라'는 인류멸망 위기에 우주로 나간 주인공들의 활약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마치 몇 년 후 지구에서 펼쳐지고 있는 팬데믹 상황을 예견한 듯한 내용이 전개된다. 인류가 범해온 잘못 때문에 전 세계적인 식량부족사태가 온 세계를 뒤덮은 가운데 NASA(미우주항공국)마저 해체되어버린 극한 상황 가운데 지구 밖 시공간에 불가사의한 틈이 열리고, 주인공들에게는 이 틈새를 통해 인류를 구해야 한다는 임무가 주어진다. 그 임무완성을 위해 주인공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에 둔 채 우주로 떠난다. 그들이 떠나면서 남기는 한 마디 대사, 그 한 마디 속에서 오늘 교회가 세상에 말해야 할 메시지를 찾아본다.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We will find the answer. As always)..."

우주벤처기업 '블루 오리진(Blue Origin)'. 아이큐가 150이 넘고, 세계 1, 2위를 다투는 재력가로 아마존의 창업자로 2주 전 아마존 CEO를 사임한 베조스(Jeff Bezos)가 창립한 이 기업은 로켓, 우주선 개발사업 등을 하는 우주개발기업이다. 블루 오리진의 로고에는 지구를 덮고 선 두 마리의 거북이가 모래시계를 안고 우주를 쳐다보는 모습 아래 'Gradatim ferociter(한걸음씩 맹렬하게)'라는 라틴어가 쓰여져 있는데, 베조스는 2024년에 인간을 달에 정착시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제 유인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행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행보는 달과 우주의 신비함을 넘어 방아 찧는 토끼가 서있던 자리에 마침내 인간이 살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듯하다.

전문가들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는 지구는 위험하다. 지난주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해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으면서 10년전 동일본 대지진의 악몽을 재현시키지 않나 하는 우려를 낳았다. 이번이 아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다는 미 국립빙설자료센터의 작년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빙하가 녹는 속도가 연간 0.8톤에서 1.2톤으로 증가하는 등 충격적인 속도로 얼음이 녹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멈추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활동과 계속되는 변종 바이러스의 전파..... 지구상 어디에 과연 안전한 곳이 있을까 이렇게 빙하가 녹고, 지진과 해일이 땅을 흔들어대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인류를 공격하고, 이전의 일상적인 삶이 다 헛크러진 이 세상에서 인간은 '지구라는 별'을 떠나 새롭고 안전한 별을 찾아 우주로 떠나고 싶은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마음들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통해 희망을 찾아보고자 하지만, 우주의 어느 다른 별을 찾으면 과연 인간의 고민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멸망해가는 별인 지구를 떠나고 싶은 인간, 자기들만의 별을 찾아 안전한 생활을 하고 싶은 지구를 향해 영화 '인터스텔라'는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라고 말해주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다. 이런 인간의 마음을 향해 교회는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가시적교회인 지상교회들은 이미 안전한 도피성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교회가 답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그렇게 해왔듯이..."라는 막연한 영화 속 대사 같은 말을 외친들 이미 실망한 세상은 교회가 던져주는 그 밧줄을 붙잡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포스트코로나19의 기독교'를 연구하고 의논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논문과 웹세미나(Webinar) 등을 통해 대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그동안 교회가 제시해온 목회와 선교와 양육과 상담과 세상과의 소통에 대한 의견이 얼마나 힘이 있었단가. 이론은 있는데 실재를 살지 못해 별다른 힘이 없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처량해 보일 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영화 '인터스텔라'는 절망상태에서 나타난 틈새를 파고들어가 마침내 플랜A를 성공시켜 인류가 지구 바깥으로 이주해 정착하게 하면서 마무리된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기에 유일하고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진리를 선포해야한다. 그리고 그 진리의 가르침을 살려 보여주어야 한다. 영화 속 과학자들과 주인공들이 만들어낸 결론보다 더 확실한 미래의 결론이 성경 속에 있고, 그 성경 속의 말씀들이 창조주의 변치 않는 플랜(섭리)이라는 사실을 믿고 행할 때 비로소 교회는 설 수 있고, 마지막 때까지 든든히 서서 구원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끝나지 않을 것같이 긴 팬데믹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순간처럼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다. 사랑과 함께 간다면, 그래서 이렇게 영화 속 주인공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린 답을 찾았다. 그 답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성경이 늘 그랬듯이....."

djlee7777@gmail.com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제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 유형 본인구독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 사
영 어: _____ 평 신 도

배 달 주 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 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 달 주 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__년__월__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가까운 가족일수록 각듯한 예절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귀하게 여기고 예의를 갖춰야 한다.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에

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내 집 강아지도 주인이 귀하게 여겨야 동네에서도 귀

하게 여김을 받는다. 아프리카에서는 신부의 몸값으로 소 한 마리를 지불한다고 한다. 예쁜 신부에게는 소 2마리 값을... 그런데 소 9마리를 지불한 신부가 있었다고 한다. 동네 사람들의 상상은 하늘보다 높았다. 도대체 얼마나 미인이길래 9마리 소를 지불했을까? 그러나 신부를 데리러 간 친구들은 신부를 보는 순간 놀라하는 줄 알았다. 1마리만큼도 되지 않을 볼품이 없는 신부에게 9마리가 가당치도 않았

다. 그런데 시집은 신부는 그날로부터 단 한 번도 동네 사람들에게 얼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궁금하기 짝이 없는 동네 사람들이었지만 어쩌하겠는가? 그러는 사이에 10년이 지났다. 어느 날 신부의 모습을 보는 잔치가 벌어졌다. 동네사

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단정하고 교양 있는 신부를 처음 보았다. 소 9마리를 주고 신부를 취한 신랑은 자기 아내를 왕비를 대하듯 했다. 무학자요 외모도 교양도 없던 신부도 자신은 9마리 이상의 가치 있고 고귀한 신부가 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 결과 신부 중의 신부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요즘 코비드 상황에서 재택근무가 대세라고 한다. 남편도, 자녀들도, 맞벌이하던 아내도 모두 24시간 가정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머물며 살아가고 있다. 아침에 헤어졌다가 저녁에 만나는 반가움도 없어졌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도 무거운 스트레스에 놀려 지내고 있다. 바깥 출입도 자유롭게 못해서 계속 짜증지수와 신경질이 늘어만

가고 있다. 가까운수록 예의를 갖춰야 한다. 사랑할수록 귀하게 여겨야 한다. 가깝다는 것은 무례하다는 말이 아니다. 친한 것과 무례한 것은 다른 것이다. 코비드 상황에서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들이 더 크게 들린다고 하니 참으로 딱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성경은 일찍이 가까운 가족들이 지킬 기본적인 예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들을 주님 섬기듯 복종하라고 하셨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돌보아 주도록 하셨다. 피차에 가족이라도 예의와 범절을 각듯히 지킬 때에 그 가정은 작은 천국을 이룰 것이다. 행복한 가정은 주택 공간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다. 가정의 행복은 오로지 사랑과 존경 지수에 비례한다. 가게에서는 손님들에게 천사처럼 씩씩하고 친절하던 여 집사님들이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어두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참 혼신을 겪은 적이 있었다. 달려 몇 폰 뜯고 오는 낮은 손님들보다 자신의 분신인 가족들을 더욱 존경하고 사랑해야 한다. 셀러리를 챙겨주는 직장 상사의 눈치도 잘 살펴야 하겠지만 한 몸인 가족들의 눈치도 민감하게 살펴야 한다. 이 예절 훈련들이 마스터되면 코비드 기간도 끝이 날 것이다. 주어진 특별 수업과 훈련에 좋은 성직들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이기성 목사
(밴쿠버 삼성교회)



실천신학자인 위터 헨릭슨(W. Henlikson)은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과정과 삶을 통해 제자화 되어 가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선교신학자인 보쉬(D. J. Bosch)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도상 위에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즉 미숙에서 성숙으로, 부족에서 완전함으로, 결핍에서 충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또한 ‘나는 지금 무엇에서 무엇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믿기로는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결코 외부적인 어떤 재화와 소유의 있고 없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자기 존재론적 정체성에 대한 자기 각성과 물음이 없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매일 물어야 합니다. 묻되 내가 무엇을 얻어야 할지, 쟁취해야 할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에서 무엇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욕망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의 물음에 대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런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에 대한 답을 품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주목해봅시다. “은 나팔 돌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구절의 핵심은 ‘은덩이가 은 나팔’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은덩이가 은 나팔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은덩이가 은 나팔이 되기 위해서는 은 나팔을 만드는 전문가에게 붙잡혀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은덩이가

어 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은덩이 같은 성도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며 예수님을 전하는 은 나팔과 같은 성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 은 나팔 같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덩이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은덩이를 비워내야만 합니다. 공명이 가능하려면 속을 비워야만 합니다. 속이 다듬어지고 청아해져야 나팔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잡으시자마자 우리를 은 나팔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속과 내면을 다듬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에 쌓여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 죄의 불순물들, 욕망의 찌꺼기들을 썩여내시고, 갈아내시고, 청소해내기 시작하십니다. 은 나팔은 “쳐서 만들”(2절)듯이 때로는 강제적인 방법도

고백을 남기시고 순교하셨습니 다.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은 나팔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 나팔이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나팔 소리입니다. 그런데 나팔도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나팔은 잘 만들 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내고 싶은 소리만 내는 나팔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채우기 위한 감정처리용 나팔로 본질이 변질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은 나팔의 사용목적은 그런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전 달용이었습니다. 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세상과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신앙적 인물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 나팔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계시 전달용 은 나팔로서의 삶을 살았습니 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 나팔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 나팔이었습니다. 에스더는 구스 온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 나팔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 나팔로서의 사명을 다했습니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은 나팔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은덩이를 넘어 서서 은 나팔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계시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기대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과 기대하심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gssolee@hanmail.net

은을 쳐서 은 나팔을 만들라

민수기 10장 1-2절

다 은 나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 나팔 전문가에게 붙잡히는 은덩이만이 은 나팔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조금 못생겨도 질이 좋지 않아도 색깔이 곱지 못해도 은 나팔 전문가에게 잡히기만 하면 회광이 있습니다. 은덩이 자체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문가의 재창조 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인생을 재창조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해법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세상의 재미에 이끌려 쾌락에 붙들리고 정치와 권력 그리고 자기의 꿈과 생각과 편견에 붙들려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술과 마약과 같은 것에 붙들려 끊지 못하고 노예가 되

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때 묻고 불순물이 섞인 은덩이라 할 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아름다운 은 나팔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와 가치로운 삶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전문가이신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은 나팔로 재창조해내실 것입니다. D. L. 무디 목사님은 일찍

이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을가 그러면 하나님께 붙들리라”고 외치셨습니다. 은덩이는 은덩이 그 자체에 가치가 있어서 은덩이 자체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즉 소유의 기쁨이 종종 은덩이가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소유의 기쁨을 넘어서야 합니다. 어떻게 넘어서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은덩이로서 우리는 기쁨보다 더 큰 은 나팔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명의 기쁨입니다. 은덩이는 소유의 기쁨만을 주지만 은 나팔은 사명의 기쁨을 줍니다. 은덩이는 결코 알 수도 는

좋은 소리를 내는 은 나팔이 되려면 먼저 속이 다듬어져야 합니다. 은덩이는 원래 소리가 없는 금속입니다. 은은 금속이 운데서도 마찰소리가 가장 작 속에 따라서 부딪힐 때마다 은 은하든지 또는 날카로운 소리 듣지 저마다의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은은 거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을 성도들로 비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이 세상에는 은덩이 같은 성도가 있고, 은 나팔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무슨 뜻 일까요? 말씀을 먹기만 하고

쓰시고, 위로도 하시면서 우리의 속을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완벽한 은 나팔이 될 때까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다듬어 가시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 셉니다. 마침내 이렇게 다듬어진 은 나팔에서만 가장 아름다운 소리, 즉 위대한 신앙고백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은 86세까지 사역을 하며 로마 위정자들로부터 박해를 받다가 결국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박해자들이 화형 직전에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풀어주겠다고 회유할 때 “하나님은 평생 내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는가?” 라는

금 해업치고 있는 물이 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 임무는 물을 정화하고 독성을 더 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당신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페이스북은 당신 속에서 열정을 일으키고, 그래서 댓글까지 달도록 할 수 있는 무엇인 지 다 알고 있다. 인스타그램 또한 어떤 사진이 당신의 감각을 자극 하는지 잘 알고 있다”

SNS 없이는 못 사는...

(1면에서 계속) 알면 정말로 놀란다) 그리고 또 이러한 앱이 왜 그렇게 중독성이 강한지를 잘 보여준다. 다큐멘터리를 위해 인터뷰를 한 몇몇 사람들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미 중요한 책을 썼고, 나는 그들이 카메라에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꼈다. 그러나 이 다큐멘터리에는 인터뷰뿐 아니라, 현실에 대한 왜곡된 생각으로 인도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소용돌이에 빨려들어난 한 학생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드라마도 포함되었다. 이 다큐가 왜 중요한지 몇 가지를 열거한다. 이 다큐가 많이 알

려지게 된다면 끊임없이 온라인 상태에서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1. 어린이와 청소년이 소셜 미디어에서 경험하는 압력과 불안에 대해 더 잘 이해해야 한다. 소셜 미디어에서 활발하게 활동할수록 친구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 온라인에 연결되자마자 온라인 활동은 시작된다. 비록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는 다른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라 해도 그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굳이 꼭 “소셜 미디어”로 간주되지는 않는 앱 때문이라도 오늘날 십대는 학교에서 일반적인 수준을 능가

하는 불안감과 사회적 압력을 느껴서 살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앱인 유버전(YouVersion)에는 성경 읽기 계획뿐 아니라 특정구절에 디자인을 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기능도 들어있다. 그리고 친구들은 그 구절에 대해서 댓글을 달 수 있다. 성경연구에 대한 채팅방도 있다. 다시 말해, 이제 성경은 하나의 소셜 미디어가 된다. 물론 이 앱을 쓰면서 소셜 미디어적인 기능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앱을 쓰는 것은 소셜 미디어 속에 있음을 의미한다. 내 자녀들에게 유버전을 열심히 추천했던 부모로서 나는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댓글 창에는 이런저런 농담뿐 아니라, 특정

학생이 만든 아트구절에는 “좋아요”를 눌렀는데 내가 만든 구절에는 누르지 않은 선생님에게 그 이유를 묻는 질문도 올라온다. 바로 이런 상황이 우리가 다뤄야 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유버전은 성경 읽기, 사회적 불안, 포레의 압력, 대중 앞에서 의로움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사용된다. 나는 유버전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런 정말로 놀라운 도구다. 나는 단지 소셜 미디어적 본질(ethos)이 우리 주변 모든 것 속에 이미 얼마나 깊게 스며들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사례로 언급했을 뿐이다. 2. 각종 기계가 우리 모두에게 중독의 원인이 돼버린 이유를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셜 딜레마는 우리가 왜 하루 종일 휴대전화에 매달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잘 보여준다. 앱은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을 뿐 아니라, 쉬지 않고 그것을 더 찾도록 디자인됐다. 알림기능은 그런 기능 중 아주 사소한 한 가지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앱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관심을 가진만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끊임없이 해당 앱의 플랫폼에서 시간을 소비하고, 소비하고, 또 소비하도록 만든다. 뛰어난 알고리즘일수록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더 많이 뿌려준다. 크리스 마틴(Chris Martin)은 다음과 같이 아주 탁월하게 이 다큐를 평가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

금 해업치고 있는 물이 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 임무는 물을 정화하고 독성을 더 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당신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페이스북은 당신 속에서 열정을 일으키고, 그래서 댓글까지 달도록 할 수 있는 무엇인 지 다 알고 있다. 인스타그램 또한 어떤 사진이 당신의 감각을 자극 하는지 잘 알고 있다” 3. 우리는 소셜 미디어가 인간 상호작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잘 알아야 한다. (11면으로 계속)

알칸사의 새로운 법

금번 새롭게 제정된 알칸사의 주 법은 '정부는 모든 것이 단하지 않는 한 교회도 닫을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 법은 교회폐쇄에 대한 주지사의 권한을 제한하고 예배당에 대한 종교적 자유 보호를 확대하는 법안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 HB 1211는 정부가 교회의 문을 닫도록 강요하는 세계적으...

주지사인 Asa Hutchinson은 이 법안이 서명 없이 법적효력을 얻도록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법은 비상사태의 상황 속에서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Hutchinson 주지사는 "종교조직에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강력한 정부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종교조직에 상당한 부담을 부과하는 건강 안전 또는 점유 요건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법은 주민들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법제화시킨 것에 의미가 있다.

역사지보다 귀한 것

에게 존경받는 은퇴목사가 멋진 영상의 배경과 음악을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을 언설들을 나열하는 일들이 있었다. 코로나라는 대포로 교회를 박살내었다는 정신없는 이야기를 방송국 프로그램 통해 뱉어낸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의 아들이 가요 프로그램에 등장하면서 여러 면에서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다. 신, 불신을 막론하고 '좋아요'를 꼭꼭 누르는 그의 다른 영상을 볼 기회도 있었다. 성경자체에 대한 통시적 해석이 아닌, 지역적 세계관의 사상적인 접근으로 독자들을 감동(?)케 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 1억, 권사가 되려면 5천만원을 내어야 하고, 돈을 내는 방법으로는 은행안내까지 첨부했다. 등장시키려는 대표적인 예를 끄집어내어 강론을 하는 것이었다. 한국 교회를 신랄하게 박살내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에 많은 사람이 호응을 하며 '좋아요'를 엄청 누르는 것을 보았다.

생각해보면 그도 알 것인데, 설교의 흥분된 마음에 잠시 실수하는 것이었을까? 만일에 평생을 설교자로 살다가 그렇게 실수한 것이라면, 차라리 은퇴

던 시대였으나 지금은 속도 빠른 것이 속도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가 되었다. 속도가 중요하다. 일정부분 동등이 되지만 속도만 빠른 것이어서, 잘 잡아먹지만 해서는, 결코 좋은 결론과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요 사업가라 하여도 성경을 따라올 수는 없음이 분명하다. 성경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에 그러하다.

인터넷 시대, 유튜브 시대가 등장함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는 과정을 점점 잊어간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 눈에 보이는 감각으로 오성의 인식에 의한 관념(觀念)을 만들 필요도 없이, 표피적 감각에 의해 판단하는 경향이 커졌다. 쉽게 쉽게 결정해 버린다. 속도에 희열을 느끼고 속도에 잠식되었기 때문이다. 생각이 그 자체가 아주 불필요한 노동이 되어버린 것이다. 가장 큰 해악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통로가 점차 막혀져 간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설교와 찬양의 영상들도 호기심을 이끌 수 있는 비주얼에 대한 내용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관심을 끄는 문구, 비주얼 영상을 위한 배경과 보이스, 최근 등장한 자막의 글씨의 효과적인 이용 등을 통해서 곰곰이 듣고 곰곰이

것인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우리가 뒤집을 수 없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불편해 보인다. 그러나 힘이 들어도 땀을 흘려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아래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법과 기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기초로 해서 복음을 깨닫게 된다. 이 법이 없으면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기준도 천국으로 가는 기준도 없게 된다. 그러나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법 없이 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범 크리스천 사회에 너무 많다. 자신이 원하는 생각들을 성경에 복종시키지 않고, 자기 나름의 깃발을 흔들며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다. 심각하게 책망 받을 불순종의 행위이다. 불순종이란 단순히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생각을 우선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는 비상 상황에서 인터넷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성찬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하버에서 이희은

A: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 성도가 주일에 교회당에 모이기가 위험한 비상 시국이어서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으로 혹은 줌(zoom)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보다 오래 지속되어 벌써 10개월째 계속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라도 교인들이 이 영상예배에 익숙해져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는 잘못된 습관이 형성될까 걱정이 됩니다. 모이는 예배보다 편리한 예배를 선호하는 젊은 이들이 앞으로 더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리다보니 인터넷 성찬 문제(Virtual communion)가 각 가정에서 가질 수 있는나? 라는 문제로 교계가 찬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미국장로교회(PCUSA)는 작년 3월 26일 총회 사무국 권고사항(a new advisory opinion)을 발표했는데 "교회가 긴급한 상황에서 온라인이나 인터넷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우 목사는 "온라인 성찬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식을 나와 당신의 생각의 틀에 가두지 말자"고 했습니다(개혁저널 92호 부록 p.25-26).

말씀과 함께 하는 성찬은 대면예배까지 기다려야

고신대에서 교의학을 가르치는 우병훈 교수는 인터넷 예배는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가슴 아픈 타협(Compromise)이다. 인터넷 예배가 허용된다고 인터넷 성찬까지 허용하는 것을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1)그는 인터넷 성찬이 가능하다면 인터넷 세례도 가능한가? 라고 질문하면서 세례가 말씀의 사역자만이 할 수 있는데 평신도에 의한 세례가 불가능하다면 평신도에 의한 성찬은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2)성찬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연합뿐 아니라 성도 사이의 수평적 연합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인터넷 성찬은 부적절하다. 온 성도들이 마주하며 교제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성찬은 풍성한 성도의 교제의 의미를 축소하게 하는 것이다. 3)종교개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듯이 성찬은 말씀과 함께 행해야 한다. 각 개인이 집에서 행하는 인터넷 성찬은 "말씀과 함께" 라는 요소를 약화시킬 수 있다. 4)인터넷 성찬은 성경원리에 맞지 않으며 득(得)보다 실(失)이 크다. 성례를 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개혁저널 92호 부록 p.11-13).

인터넷 성찬에 대해 각 교단마다 목사마다 신학적 입장과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모든 것을 담임목사와 당회가 임의로 결정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성찬은 대면예배 시까지 가능하다면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Zoom으로 드리는 예배에서는 서로 화상으로 목사와 성도들의 얼굴을 대면하기에 미리 교회가 성찬의 떡과 포도즙을 집에 전해주고 Zoom 화면에서 담임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고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떡과 포도즙을 배달하는 것은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가능하다면 성찬은 대면예배 시까지 연기하여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마음대로 바꾸려하는 시대이다. 남자와 여자, 교회와 예배, 세상과 세속 등의 많은 혼란함을 본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이다.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목회자, 목회자를 교육하는 신학자, 교수, 저명하다는 목사 등등 구별이 없다. 점차 당연히 나아야함에도 마음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자기 깃발, 자기 나팔을 불며 사람들에게 손짓하며 유혹한다. 간절하게 기도드린다. 모든 것이 빨라진 초스피드 시대에, 아무리 많은 것이 변하여도, 오직 주님의 깃발만 바라보며 주님의 나팔소리만 듣고 가게 하옵소서!

davidnje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세상을 향한 깃발과 나팔

- 속도, 기준, 법(法)

지금도 당연한 문제, 상식과 기준에 비추어보면 어려울 것이 없는 문제임에도 의외의 해석과 결론이 난무하는 것을 본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복음, 교회, 성경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크리스천이다. 그러나 동일한 크리스천이라 하여도,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답을 드러내는 것을 본다. '역사지'라 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해하고자 함에도 이해가 상당하 어려우 신학자, 교수, 평소 존경 받는 위치에 있던 목회자들의 행태를 보고서 여러 가지 의문을 품게 된다.

최근 한국에서 개혁주의 사상을 표명하는 신학자가 중세 시대의 교회로부터의 신앙의 자유와 오늘날 코로나 환경 속에서 교회를 출입할 수 없는 환경을 연결해서 교회라는 건물에 성도들의 신앙이 갇혀서 말도록 권고하는 책을 내었다. 앞으로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열광하며, 자신들의 교회와 신앙 생활의 근거로 삼을 것 같다. 책을 팔기위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언설들이다.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밤낮으로 땀 흘리는 목회자의 고통은 뒷전인 채 책상머리에 앉아 영혼을 복되게 하지 못할 일반 공구한다면 그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가 배운 지식은 그저 주님 앞에 받을 책망의 조건밖에는 되지 못할 것이다. 더불어 다수의 그리스도인들

후에 겸손히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그동안 누려온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생각해 보면 알 것을 그렇게 떠들어야 했을까? 그의 멘탈이 의심스럽다. 임직식 헌금과 관련해, 과연 그렇게 상식 없는 요구서를 보내고 받고 하는 교회가 과연 대한민국에 몇 교회가 될 것인가? 왜 자신을 제외한 교회들을 그렇게 몽땅 도매금으로 제단을 하고 마는가? 자신의 언행이 일반 교회에 대해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의 짙은 잘라버리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의로운 듯 들려지는 그의 거친 언어의 제초제가 어린 영혼의 짙을 깨사시켜버리는 느낌이다. 더 나아가 새벽기도를 펼책하기까지 하는 그의 설교내용을 들으면서, 가난한 성도들이 계속 생산되는 이 위급한 코로나 시기에 차라리 조용히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나라에 유익함이 되는 것임을 깨닫기를, 제발 그 깨달음이 너무 늦어지지 않기를 기도드린다.

방향과 속도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속도를 내는 것은 죽음이요, 방향을 의미한다.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까지도 해치고 망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모든 것에 엄청난 속도감이 붙은 것을 본다. 빌 게이츠의 말이다. 과거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었

서 영혼이 잘 소화할 기회를 차단해 버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식량이 필요 없는 아주 간편한 알약의 등장을 연습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여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르고 참된 방향과 목표를 말씀하고 있다. 속도에 제압되지 않도록 권고한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예수님이 직접 깃발을 높이 드신 것이다. 다른 데 가지마라, 딴 생각하지 마라, 내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다른 것에서 길을 찾지 마라.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무리 모든 것이 유익하고 눈에 좋아 보이고 편리해 보여도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그분의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그 인생의 결국은 방황뿐임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세상이 급하게 빨리 변할수록 더욱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오직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안에서만 인생은 긴 방향을 끝낼 수 있고, 진리가운데 생명의 거름이고,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꼭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되고, 누구든지 다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각자가 생각하는 진리에 대한 깃발을 들고 흔들다면 얼마나 엉터리가 되고 말

는 일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이다.

법과 기준이 없는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해주신 길이기 때문이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 밖에 없다. 왜 그런가? 그분은 변하지 않고,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다 변한다.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한다. 아무리 잘 관리하고 좋은 것을 먹어도 몸도 변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마침내 다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 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 소멸되고 변한다. 믿을 것이 없다는 말이다. 세상의 물질계는 다 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주님, 말씀 밖에는 없다. 말씀은 변할 수 없다. 그래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개념으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신뢰를 해보려고 하는 말일 뿐이지, 진정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생각의 기준을 주님의 생각의 기준으로 옮겨야 한다. 나의 기준이 없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만약에 우리의 기준을 지금도 세우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과 땅 만큼이나 차이가 있다. 결국은 자기 생각 때문에 인생은 스스로 망해간 다.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기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탈리쉬(TALYSH)

이란과 아제르바이잔에 거주하는 5개의 탈리쉬족의 통합 프로젝트. 거의 10만 명이 달하는 탈리쉬족이 이란의 북서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3만 명 정도는 아제르바이잔의 남동부에 있다. 그들은 카스피해를 따라 놓고 산림이 우거진 탈리쉬 산맥에서부터 아열대의 해안지방에 이르기까지 점예하게 대조되는 땅에 살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탈루숀(Talushon)"이라고 하며, 탈리쉬어라고 하는 인도-이란계 언어를 구사한다. 탈리쉬족은 모두 자기들의 언어를 사용



하지만 대부분 아제르바이잔어도 유창하며 러시아어나 파시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탈리쉬인들은 수 천년 동안 카스피해의 남서부 지역에서 살았다. 그들은 중세에 터키의 영향을 받았으며 1600년대에 독립군주국(khanate)을 세웠다. 1800년대 초기에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탈리쉬인들은 러시아 지배하에 들어갔으며 아제르바이잔이 소련에서 벗어난 1991년까지 계속됐다. 오늘날 탈리쉬인들은 다른 중앙아시아 민족들이 과거의 이슬람 전통을 따라야 할지 현재의 서양 문화와 기술을 따라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삶의 모습

5개의 탈리쉬 종족의 생활 양식은 환경 차이 때문에 상당히 다양하지만 거주지에 상관 없이 대다수 탈리쉬인들은 농부들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쌀이 주요작물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밀과 보리를 재배한다. 카스피해 근처 저지대에서는 차와 시트러스 과일을 재배한다. 저지대에 사는 많은 탈리쉬인들이 마늘, 양파, 호박, 멜론, 콩, 포도 등의 신선한 작물을 경작한다.

탈리쉬인 어떤 사람들은 숙련된 장인이다. 주요 공예는 비단, 양탄자, 모피 생산 등으로 양철작업을 하거나 구두를 만든다든지 보석 세공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탈리쉬인들은 거주지역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의 가옥에서 산다. 산악지대 사람들은 자르지 않은 돌로 만든 나즈막한 지붕의 가옥에서 산다. 해

안지역 사람들은 갈대나 사초(줄기가 딱딱한 풀과 같은 식물)로 된 지붕이 있는 진흙집에서 산다. 집에는 대개 천정까지 이르는 높은 문이 있는데, 요리할 때 생기는 연기가 나갈 구멍이 지붕에는 없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탈리쉬의 가옥에는 가구가 없지만 서양 스타일의 가구를 갖는 집들이 늘고 있다.

신앙

탈리쉬인들은 100% 무슬림이며 주로 시아파에 속한다. 그들은 예수를 예언자이며 교사, 선한 사람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다. 이슬람은 성과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후에 선함과 코란에 대한 지식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믿는다.

탈리쉬인들이 무슬림이라고 고백하지만 이슬람 이전 종교의 몇몇 흔적들이 남아 있다. 예를 들면 나무와 숲에 커다란 경외감을 가지며 나무는 가장 성스러운 장소 중에 속한다. 또한 선과 악의 영 존재를 믿는데 가장 위험한 영은 "알라잔(Alazhan)"이라는 "붉은 여

인"이다. 알라잔은 아기가 태어날 때와 유아기 때 여인들을 공격한다고 믿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아제르바이잔은 구소련의 3개의 트랜스코카스스공화국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경제문제에 직면해 있다. 높은 실업률과 오랜 전통의 부정부패의 부담을 안고 있다. 기독교인에 대한 정부의 박해는 혁명 이후로 심각하게 증가했다. 이란과 아제르바이잔에 살고 있는 13만 명의 탈리쉬인들 가운데 30명 미만의 성도들이 있다. 이 소중한 민족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 자료가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독교방송, 성경, 문서자료가 없고 선교단체는 탈리쉬족 중 어느 종족에 대해서도 목표를 두고 있지 않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中 원저우시 5교회 급습 십자가 철거

중국 원저우시가 해당 지역에 있는 교회 십자가를 철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순교자의소리(VOM)는 지난달 15일 밤 원저우시 당국이 통안구 장거리교회를 포함해 교회 네 곳의 십자가를 철거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도 슈이신크리스천교회 십자가를 철거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VOM 현수 폴리 대표는 "원저우시 당국에서 기증기 기사를 고용해 교회 십자가를 철거하고 있다"며 "교회 십자가가 강제로 철거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당국자들은 지난 2014년 6월에도 장거리교회 십자가를 철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장거리교회는 이후 크기가 작은 십자가를 세웠지만 최근 이 십자가마저 철거당했다는 게 한국VOM 설명이다.

특히 장거리교회는 교인들이 교회 십자가를 도난당했다고 지역 공안에 신고했지만 원저우시 통안구 공안국은 "창거 교회에서 도난당한 십자가는 본 공안국의 관할이 아니다. 공안 기관은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VOM에 따르면 원저우시 기독교인 인구는 100만 명 이상이다. 시 당국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교회도 1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 대표는 "원저우시에서 십자가가 철거된 지 7년째다. 최근 원저우시에서 교회 다섯 곳의 십자가를 심야에 급습한 사건은 십자가 철거가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원저우와 중국 전역의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해야 한다"고 전했다.

英 심리치료사, '성전환 후회 경험' 연구 거부당해

영국의 한 심리치료사가 베스스파대학교(Bath Spa University)에서 성전환을 후회하는 이들에 대한 연구의 허가를 거부당하자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제소했다.



8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성전환자(Transgender) 상담 경력 10년 차 심리치료사인 제임스 카스피안은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과 여성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자신의 상담 및 심리치료 석사 과정에서 이를 연구하길 원했다.

그는 특히 성전환자들이 경험하는 후회와 성전환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열망을 조사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대학으로부터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비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결국 연구를 거부당했다. 이에 카스피안은 법원에 이를 제소했고, 영국 법원이 그의 사건을 심리하지 않자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한 것이다.

그는 "이번 사건은 ECHR에 가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이번 소송에는 성전환 이념의 일종으로 변질돼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경직된 시각 때문에 피해를 입고 침묵을 지켜야

하는 수백 명의 젊은이들과,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너무 많은 것들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의 예비 연구는 성전환 정치와 입원 경험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를 드러냈고, 저는 이 부분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이번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만난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의 경험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것은 이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SNS에 올라오는 글들이 대학의 평판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대학이 연구 프로젝트를 검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아이디어, 토론, 반대, 질문, 연구, 비판적 사고를 교환하는 장소인 대학이 비판의 위험을 견딜 수 없다면, 학문과 지적 탐구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원리가 어떻게 남아 있을 수 있나? 정보와 토론의 탄압이 민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는 "사람들이 제게 자신이 입은 피해를 말해 주었고, 제 직업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느꼈다. 사람들은 성전환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면서 '말할 수 없다'고 느꼈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말 뿐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검열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사건에 도전한 이유이자 궁극적으로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기독교법률센터 안드레아 윌리엄스 대표는 "성전환주의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오싷한 효과'가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소녀들과 여성들이 성 정체성 클리닉으로 보내진 비율이 3,000% 증가했다. 이는 모든 서구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후 자신의 결정을 후회한다. 왜 그럴까? 그것이 제임스 카스피안이 연구하고자 했던 질문"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현재 분위기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연구, 설명, 답변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비난을 받고 침묵해야 한다. 왜냐하면 진실과 많은 청년들에게 행해지는 해악이 잠혹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탄자니아 대통령 백신 거부 하나님만 신뢰 주장

코로나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탄자니아 대통령이 바이러스 백신 도입을 거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존 폼베 매구풀리(John Pombe Magufuli) 탄자니아 대통령은 코로나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백신의 필요성 또한 거부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매구풀리는 코로나 백신을 서둘러 도입하는 것에 대해 탄자니아 보건부에 경고하며, 서구 국가들이 만든 백신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그는 "백신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었다면 에이즈 예방 접종을 받았을 것이고, 결핵은 과거의 일이 되었고, 말라리아와 암에 대한 백신이 발견되었을 것"이라며 "(탄자니아) 국민이 백신 시험을 위한 실험 대상(guinea pigs)으로

이용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고 기독교 친생명 언론 매체인 '라이프사이트뉴스(LifeSiteNews)'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매구풀리 대통령이 하나님의 보호를 주장하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령을 취하지 않았고, 바이러스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약초를 홍보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달 3일 서부 탄자니아에서의 연설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에 바이러스 없이 (탄자니아가) 1년 이상을 살아 왔고, 사탄은 항상 실패할 것"이라며 "하나님을 계속 믿으라"고 말했다.

반면 탄자니아성공교회(TEC)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현지 주교들은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위생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게르바스 니아이송가(Gervas Nyaisonga) 브룬다 교구 대주교는 서한에서 "우리나라는 섬이 아니"라며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고, 이 재앙이 우리를 덮치지 않도록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삭 아마니(Isaac Amani) 아루샤 교구 대주교도 지난주 그의 신도들과 성직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교회가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들을 많이 잊은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가톨릭교회의 주드 타데우스 루와이치(Jude Thaddaeus Ruwachi) 다르 에스 살람 대주교도 "바이러스는 끝나지 않았다; 코로나 19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신도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9일자 구글 통계에 따르면, 탄자니아는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509명, 완치자는 183명, 사망자는 2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모든 미국인, 늦여름까지 백신 접종..."

올해 여름이 끝날 때쯤에는 미국 인구 전체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14일 밝혔다.



로셀 윌렌스키 CDC 국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여름이 끝날 때에는 우리가 자격 있는 미국 인구 전체에 백신을 접종하기에 충분한 백신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윌렌스키 국장은 다만 가장 큰 우려는 여전히 백신에 대한 망설임이라며 충분한 백신이 확보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자격이 주어졌을 때 소매를 걷어 올리도록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윌렌스키 국장은 또 "올 연말쯤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함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그는 NBC 인터뷰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폐지하는 것이 너무 이르냐는 물음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도는 점차 완화되는 추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확진율은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오하이오주 역시 지난해 10월 이후 확진자 수가 가장 적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양상으로 긴장을 늦추진 안 된다고 경고했다.

美확진자 확 줄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중증 입원 환자, 사망자 수가 연일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 중순 정점을 찍은 뒤 별다른 반등 없이

급진적하하는 추세다.

미국 내 코로나19 접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날지도 점차 완화되면서 확산세가 꺾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추적 사이트 '코비드 트래킹 프로젝트'는 14일 기준 미국 내 신규 확진자가 7만1844명이었다고 집계했다. 전날인 13일 9만199명보다 1만 8355명 감소한 수치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중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달 15일 24만 6454명까지 치솟았던 확진자 수는 이달 초 들어 10만명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7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도 지난달 중순과 비교하면 60% 이상 감소했다.

코비드 트래킹 프로젝트 측은 트위터에 "지난달 중순 이후 신규 확진자 감소폭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일일 검사 횟수가 줄기는 했지만 확진자 감소폭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는 이날 6만 7023명 증가했다. 지난달 10만 명 선을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완화된 수치다. 코로나19 사망 환자는 1363명으로 집계됐다.

CNN방송은 최근 확진자 감소 추세 요인으로 백신 접종과 계절 변화를 꼽았다. 백신 접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계절도 점차 봄으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이날 기준 한 차례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5288만 435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국 인구의 6분의 1 가량이 백신 접종을 받은 셈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인 이스라엘에서는 미국 화이자 백신의 예방률이 90%를 상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최대 의료관리기구(HMO) 클라리미 화이자 백신을 두 차례 접종 받은 60만명을 분석한 결과, 백신을 맞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감염자가 9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퍼질만큼 퍼져 집단면역?

쇼핑몰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 차고, 미용실과 식당에 도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다. 불과 3달 전만 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만명에 육박했던 인도의 풍경이다.

블룸버그는 15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인도에서의 일상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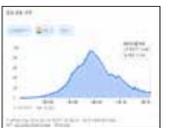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급속도로 줄어든 영향이 크다.

실제로 인도는 지난해 9월에는 일일 확진자가 수차례 9만명을 넘어섰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 미국에서 최초로 10만1358명의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 최대 기록이었다.

하지만 9월 이후 꾸준히 확진자 추이는 감소세에 접어들어 현재는 일일 확진자는 1만명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시금 대유행이 닥친 시기에 인도에서 감염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인도 시골 지역에서 낮은 검사율 등으로 제대로 확진자 수가 집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블룸버그는 확연하게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감소세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복에 대한 관심

우리는 복에 대한 관심이 많다. 손가락과 식기 등 주방용품에 '복'자를 새겨 놓는다. 가구와 장식물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복 받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새해를 맞으면 서로에게 복을 받으라는 덕담을 나눈다. 이때 자신이 직접 상대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어떤 시간이 되면 상대에게 복이 굴러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빌 뿐이다.

우리가 이토록 관심을 갖는 복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시대별로 강조점이 달라도 과거나 현재나 기본으로 여기는 것은 장수의 복, 건강의 복, 그리고 재물의 복이다. 이외에도 치아복과 친구의 복, 또는 배우자의 복 등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어 누리려는 것을 복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을 풍족하게 누리는 환경을 통해 얻는 만족감 또는 행복감을 말한다.

복을 바라는 마음은 기독교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있다. 신앙인들도 서로 복을 빌고 받는다. 단지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상대에게 복이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 복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이다. "사랑해요, 축복해요~"라며 성도들끼리 서로를 향해 두 손을 들고 부르는 내용이 들어있는 복음송이 있다. 이때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나는 상대를 소중히 여기고 있고 좋은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부른다. 반면에 축복한다는 대목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어 상대에게 행복과 은혜를 풍족하게 베풀어주시길 바란다라는 소원을 담아 부른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어 잘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 개업예배를 드릴 때 '복의 근원 감람하사' 찬송 부르기를 좋아한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설교의 주제가 되고, 대표기도와 심지어 시사기도 역시 사업이 번창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겨있다. 새로 이사한 가정을 위한 최고 인기 선물은,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삼하 7:29) 라는 성구가 적힌 액자이다. 성도들은 모든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도를 소중히 여긴다.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성도들을 향해 선포하는 전통이 전수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복신앙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1970년대 복음화가 한창 진행되면서 제작한 전도지에 자주 등장하던 문구이다.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고 외쳤고, 성도들 역시 전도

대상자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복 받은 길이라고 설득하였다. 그 당시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죄를 자복하고 죄 씻음을 얻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원색적인 복음이 중심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면 복을 얻는다는 사실도 동시에 강조된 것이다.

1970년대에 한국교회는 놀라운 수적 부흥을 경험하였다. 특히 부흥회와 신유행사집회에 참석했다가 그 자리에서 변화를 받아 회심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성도들이 부지기수였다. 이토록 불신자들이 교회로 몰려온 이유가 무엇이였을까? 대부분 교회에 가면 복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복을 자제를 소중히 여기는 선물로 받아들인 성도들도 있었지만 회심의 경

적 신앙에도 기복신앙의 요소가 있다. 자신의 필요를 초월적 능력을 지닌 신에게 요구하면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곧 신앙수준의 척도로 여겨지기도 한다.

어찌 기복신앙이?

대부분 한국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복신앙의 출발점을 6.25전쟁과 그 후에 전개된 사회적 상황으로 이해한다.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국적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현상이란 것이다. 8.15해방의 감격 이후 6.25전쟁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고, 가족과 지인들이 죽는 모습을 목격

절대자를 의지함으로 복을 누리려고자 하는 인간 모두에게 있는 종교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기복신앙의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었는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복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를 통해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대표적인 구절을 소개해보자.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 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역대상4:10).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시할 수 없다. 교회역사의 큰 변화를 가져온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 로마의 콘스탄틴대제(Constantine I, 272-337)와 중세시대에 유럽을 통일시키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프랑크 왕국 설립자 클로비스 1세(Clovis I, 466-511) 모두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고 확신하면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도 불치병이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한 뒤에 자신 또는 주위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영적으로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영원하고 추구하는 복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장 근본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나아가서 십자가 보혈을 통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마땅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다.

1980년대에 정착한 기복신앙의 뿌리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많이 안정되어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전과 비교해볼 때 사회적으로 장수와 무병,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갈망하고 집착하는 경향이 짙다. 신앙적으로는 아직도 3박자 구원, "네 영혼이 잘 팔같이 내가 법사에 잘되고 감감히 가를..."(요3:1)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기복신앙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은 성도들 중에 2가지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에 비해 풍요롭게 살게 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으며 신앙의 길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 지속적으로 힘든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편애하는 분이라고 오해하고 원망하면서 불신앙의 태도를 갖게 된다. 기복신앙을 탈피하고 성경이 제시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성경적인 복은 영적이며 내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산상수훈에 잘 드러나 있듯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압박과 고난, 그리고 욕을 받는 것을 복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례자의 신분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길 원하신다. 그렇다고 이원론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물질적인 복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영적인 복을 주시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간구해야 한다. 만일 특별한 어려움이 생길 때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적극적인 태도가 바람직하다. 단지 세상 사람들이 복을 구하는 심정과 동일한 기복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 가 허락하시는 대로 받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요구된다.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29)

부제: 교회가 가르친다! (16) -기복신앙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기복 신앙은 한국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생겨난 실용적 신앙형태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허락하시는 대로 받는 바른 신앙자세 필요

함과 상관없이 교회에 출석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결국 1980년대를 지나면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일종의 신앙적 신념으로 한국교회 안에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담아 간절히 기도를 올리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성도가 거의 없었다. 이 사실을 믿고서도 기도하지 않는 게 이른 신앙의 모습이 문제였다. 새벽기도와 금요철야기도 외에도 기도모임이 강화되었고,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금식기도와 일천번제단기도 등에 참여하였으며, 산을 중심으로 세워진 기도원을 찾아 기도에 집중하는 성도들의 수가 부쩍 늘게 되었다.

하나님에게 구하면 복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기복신앙(祈福信仰)이 뿌리를 내린 것이다. 다른 종교와 미신

하고 생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은 크나 큰 정신적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온 도시가 잿더미가 되었으며 교통시설과 생산시설이 심각하게 파괴되어 굶주림이 일상이 되고 당장 끼니를 쟁기는 것조차 어려웠다.

전쟁을 마친 뒤 온 국민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감행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을 통해 한국인은 장수와 건강보다 재물의 복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행복하게 잘산다는 것은 곧 풍요로운 물질을 얻는 것이 되었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수와 건강이 필요했다.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면 복을 얻는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으로 이해되었다. 기복신앙이 자리를 잡게 된 근본 원인은

6:14).

그렇다면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 물질, 건강, 자녀, 행통, 무병, 장수를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의 태도를 오투라고 지적해야 하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는 태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사실이기에 그렇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기복신앙을 거부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기복신앙은 개인의 정욕을 채우려는 욕망을 중시한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채우시는 분이신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자기를 중시하는 이기적 신앙과 신앙의 대가를 얻으려는 보상심리에 기초한 실용적 신앙이다.

참된 복이란

기복신앙의 긍정적 영향을 전혀 무

covenantcho@yahoo.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Worldwide Church Directory) featuring various churches such as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든한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소망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지역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좋은마을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핼(PIM)선교회, 하늘사랑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and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리더십 코멘터리 (129)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미래는 강력한 리더를 요구한다

코로나19는 교회에 주어진 기도 실험의 최적이 될 것이다.

영적리더의 8가지 증거

종교시설 관련 감염이 지난 1년간 11%에 불과했다는 한국정부의 통계가 발표된 가운데, 정부관계자는 지난 2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위기가 있을 때, 사람들은 리더십을 기대하고 강한 지도자의 방향제시를 원한다. 위기 속에서 지도자의 첫 번째 책임은 침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도자의 행동은 공포와 지혜 사이에서 길을 찾아 가는 신학적 표명이 되어야 하고 영적리더는 두려움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하며 모든 행동은 건강한 믿음과 신학에서 나와야 한다. 질병이나 세상의 법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이 리더의 결정을 이

영적리더로서 소명을 받았는지를 분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8가지 증거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의 증거들은 당신이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말해줄 것이다.

첫 번째 증거는 소명에 대한 자각이다.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소명을 받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 당신을 선택했다는 분명한 자각을 갖게 된다. 신비롭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의 백성들을 그분에게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내적 확신을 갖게 된다.

두 번째 증거는 타고난 천성이다. 참된

은 동료의식이 존재하는데 그들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문제와 갈등에 대해서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증거는 격려와 지지이다. 만일 당신이 다른 지도자들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받는다면 그것은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다. 지도자들은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을 한 눈에 알아본다. 그들은 지도자에게는 어떤 점들이 필요하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증거는 강력한 내적 의지이다. 옳은 일을 위해서 당연히 일어설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는 이것을 용기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들은 항상 위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다. 만일 당신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도 옳은 일을 감당하려고 하거나 비전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이 내린 결정이 반대에 부딪힐 것을 알면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내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다.

여덟 번째 증거는 일을 좋아하는 마음이다. 지도자의 일이라는 것은 재미삼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과 논쟁과 적의와 원망을 견뎌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열매는 그에게 어떤 일들이 보람 있는 일이었는가에 달려있다.

활동과 개인 영성 분리시키면 위선자... 통합된 리더에 호감 영적리더는 소명 자각, 천성, 지도자 마인드, 영향력, 사회적 격려와 지지, 내적 의지, 일 좋아하는 마음 있어야

끝어야 한다.

성숙한 사회에서의 영적리더의 모델

리더십의 실종이 위기와 몰락을 초래한다. 오늘날 사회는 영성과 리더십을 두루 갖춘 영적리더를 간절히 찾고 있다. 영적리더는 어떤 모습일까? 일반 대중에게 친숙한 한 가지 모델로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에 등장하는 조연자 오비완 케노비(Obi-Wan Kenobi)를 꼽을 수 있다.

오비완은 제다이 기사로서 유능하고 지적이며 선을 위해 싸우는 슬기로운 전사이다. 그는 항상 확신에 차 있지만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리더가 인격적으로 나뉘어 있기보다는 통합된 인물하기를 선호한다. 과거의 리더들은 자기가 하는 일과 영적 자아를 분리시켜 살았다. 그래서 개인의 신념이 자기 직업의 전문성과 뒤섞이는 일을 피하고자 했다. 그러나 21세기를 이끄는 진정한 영적리더는 사람들을 이끄는 활동과 자신의 영성을 따로 분리시켜 살 수 없다. 지도자로서의 활동과 개인의 영성을 분리시키는 사람은 위선자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

지도자는 천성적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기를 좋아한다. 어떤 사람은 역지로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성적인 열정과 기쁨을 가지고 그 위치를 감당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양쪽 다 결국에는 지도자로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강한 충동과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 번째 증거는 지도자의 마인드이다. 지도자는 어떤 것을 이해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지도자는 전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큰 그림을 그리며 살기 때문에 오늘의 기회와 선택들을 장기적인 관점과 관련시켜서 생각해야 한다.

네 번째 증거는 탁월한 영향력이다. 참된 지도자는 그들의 삶 속에서 효과적인 리더십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된 지도자라면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지도자로서의 특별한 은사가 눈에 띄게 드러날 수 있도록 분명한 증거를 보여 주신다.

다섯 번째 증거는 사도직이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다른 지도자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그들 사이에는 자연스러

시대가 원하는 영적리더

리더십이 불신 받고 있다. 영적 리더들마저 각종 비리와 추문으로 추락하면서 리더에 대한 존경과 신뢰도는 급속도로 무너져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바로 세우야 하는지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영적 리더에 대한 일그러진 개념을 바로잡고, 크리스천이 영적 리더로 산다는 것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려야 할 필요성이 간절하다.

영적리더십이란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이 되려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 까닭은 이들이 교회나 일터 그리고 기관 등에서 성장과 변화의 촉매 역할을 담당하여 다른 사람들이 리더십의 영향으로 좀 더 성숙하고 완성되게 하려는 데 있다. 21세기는 지도자가 인간적 자원을 넘어서는 힘과 지혜로 이끌기를 요청하는 시대이다. 지금은 마음과 영혼으로 사람을 이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sondongwon@gmail.com



인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LA비전교회 협력)

어려움 중에 성숙한 기쁨으로

질문) 서로를 버거워하며 힘겹게 살던 결혼생활이, 남편의 떠나감으로 막이 내려진 후 20년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 역시도 당연히 만만치 않았지요. 의지할 데라곤 하나님 한분 밖에 없었으니 힘에 부치면 부친 만큼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어느 덧 애들은 등지를 떠나게 되고 내게도 자유의 시간이라는 게 오더군요. 긴 세월 열여보지도 못했던 붓과 먹을 꺼내 성경구절도 써 보면서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 뿐...

'누구에게 선물할까?' 묵향 속에 미소 지어봅니다. 답) 진주조개는 모래나 이물질이 파도에 밀려들어오면 뱉어내기보다는 고통을 견디면서 그 때 나오는 조개의 진액으로 싸고 또 싸서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진주란 한 조개가 자신을 보호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낸 생존의 결과물인 것이죠. 삶의 쓰라림에 대해 토해내려고 하기보다는 감싸는 훈련을 거듭할 때 깊이 있는 인격이 되어 인내할 수 있는 동시에 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지요. '글쎄, 나도 아는데 잘 안된다'고 혹은 '내가 품기에는 문제가 너무 크고 많아요' 라고 신음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인류 최대의 베스트셀러, 성경에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6-18)고 말합니다. 울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기뻐하는 흉내라도 내고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더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보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입이나 눈가를 움직여 웃는 얼굴을 만들 때, 뇌에 신호가 전달돼 즐거운 일로 알고 엔돌핀이 분비되고 신체, 정신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지요. 또 '감사합니다'를 거듭하며 감사할 내용을 찾아볼 때 눈에 보이는 상황에 당장의 변화가 없더라도 마음의 담담함과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의 원하는 바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예견치 못한 방법으로 문제가 서서히 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 해가 반짝 뜬 건 아닐지라도 내 문제에 몰입하여 울고 웃던 자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미래를 향한 새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다음에 혼란스러웠던 시기도 지나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모래위의 발자국'이라는 유명한 사언이 있듯이 가장 힘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떠나 계셨던 것이 아니고 바로 엮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결코 안식이 없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혼자 고립되어 자기 문제에만 골몰하는 데 있지 않고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신실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나보다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10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일예배: 오후 08:45 금요일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584, www.i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어 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 저녁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www.nygethseme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진국 주일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일예배: 오후 08:00 금요일예배: 오후 0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 (212)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대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전일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청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 저녁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사역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Tel: 516)433-0862 8 Duffly Ave., Hicksville, NY 11801	어린양 개혁 교회 담임목사: 유승래 EM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 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 Tel: (845)848-2013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수, 초, 중, 고등부예배: 오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빈선대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목회서신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하나님께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존귀하게 되는 길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중 연단의 터널을 지나지 않고 존귀하게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프랭클린 대통령은 39세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아마비로 큰 좌절을 겪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으로 그 시련을 극복하고 미국 대통령직을 4번이나 역임하였습니다. 슈베르트는 평생 자기 집을 가진 적이 없었고, 피아노조차도 없었으며 건강이 좋지 않아 31살의 젊은 나이 에 죽었지만 그가 남긴 수많은 곡은 전세계인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빛으로 향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할 곳이 바로 어둠의 터널입니다. 비록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불확실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터널을 인내하며 지나온 사람들은 모두 존귀한 삶으로 인생이 마무리 되었다는 것입니다.

잡언 3:4-6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법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때에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에게서 글이 하나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앞에 떨고 있는 교회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과 유사한 전염병이 로마시대의 로

마도시 곳곳에 불길처럼 번져 갔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기독교박해에 의해 카타콤으로 숨어서 생명을 보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드리며 성찬식을 했는데 그것을 박해하는 자들이 사람의 피를 먹는 자들이라고 황제에게 고소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잡아 죽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위해 로마시내 한복판에 있는 땅굴 속으로 숨어들어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카타콤입니다. 그 무렵 로마도시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시내 길거리 곳곳에 죽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하나 그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대는 자들은 모두 전염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시

내는 사람들의 시체가 길거리마다 쌓였고,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밤중이 되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로마시내는 깨끗하여졌습니다. 로마의 고관들로부터 일반 시민들은 정말 공경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시체를 처리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알아보니 카타콤으로 숨어들어있던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로마가 기독교화 되고 마침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의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은 한사람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1:2에 기록된 대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열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한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전염병도 악성 바이러스도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안고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해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소극적으로 두려워 떨며 카타콤 더 깊은 곳으로 숨지 아니하고 전염병이 창궐한 도시에 나와 시신을 수습하며 예수 사랑으로 진군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전염병이 돌때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닙니다. 담대히 나와 시체를 치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사랑을 담대히 실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지켜 주셨고 한명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역대하 7:14-16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때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열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찌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듣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성도들이 기도하면 모든 전염병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

습니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 전염병 앞에 떨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겁먹고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든, 온라인예배로 기도하든 성전에서 적극적으로 고국과 미국을 위해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삶에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기본수칙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의 분별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사랑의 능력, 예수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잡언 3:5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우리의 명철과 지혜의 의지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songpak@hotmail.com



미국신대륙 정복사의 두 가지 과오 인디언전쟁과 노예제도...그 역사왜곡(3)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1) 미국 인디언 학살(虐殺)과 역사 왜곡(History Distortion) 그런데 큰 문제(?)는 약 5세기 동안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 자행된 아메리카 침략과 인디언들 살해 및 몰살의 천인공로(天人共怒, A Heinous Crime)할 죄악들을 마치 미국 청교도들에 의해서 행해진 악행(?)으로 주장한다는 것이다. 일반 교인들이나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그것은 역사왜곡(History Distortion)이며 무지의 소산이다.

왜냐하면 첫째, 청교도들은 식민지를 정복한 군인들이 아닌 영국 국왕의 식민(植民)을 허락하는 특허장을 받아 오직 신앙의 자유와 박해를 피해 신대륙 아메리카에 1620년 첫 정착한 민간인들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1620년부터 1776년 영국 식민지배에서 미국이 독립하기까지는 인디언 원주민과의 전쟁은 영국 왕의 통치 가운데 인디언들과 영국군의 전쟁이었다. 또한 미국이 독립한 이후에는 미국 정부군과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미국독립전쟁” 이후 “넓고 싼 땅”을 요구하던 백인 정착민이 서진하게 되면서 그곳에 사는 인디언은 저항을 하였고, 이들을 근절시키려는 미국 정부와 인디언 박멸 전쟁이 벌어졌다. 인디언 영토에서 쫓겨나 연방정부가 마련한 땅인 “유보지(Reservation)”에 들어갈 것을 강요하자 격렬한 저항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역사는 청교도와 인디언의 전쟁이 아닌 “미국 백인정착민과 미국 원주민인 아메리칸인디언 사이의 정복전쟁”이라고 명명한다.

그렇지만 전술한 것과 같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제국주의와 야합(?)하여, 선동한 청교도 정치(政治) 목사들과 선교사들, 그 주장에 동조한 정착촌 백인

들, 그리고 강성, 극단의 민병대와 정부군에 의해 자행된 인디언과의 정복전쟁으로 말미암은 학살(?)은 인과관계(因果關係)상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윤리, 도덕적 역사의 비판은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당시 제국주의 시대정신 역사의 현장에 있던, 성경적인 청교도들은 원주민 인디언들을 박해, 살해에 다 찬성(Approval)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증거가 바로 인디언원주민 선교(Mission)였다.

물론 이 선교사역 역시 제국주의와 동조 야합한 부정적인 면도 있다. 그렇지만 많은 청교도 목사들과 선교사들 그리고 성도들은 진정 인디언들을 품고 사랑했다. 심지어 인디언들을 위해 순교 재물이 되기도 했다

2) 인디언 선교(宣敎) 청교도들이 미대륙에 이주한 역사만큼 인디언선교는 오래

도 하였고, 매사추세츠 베이컨 장에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요, 인류의 구세주에게 순종과 지식으로 야만인들을 끌어오도록 식민자들에게 요구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야만인들인 인디언들에게 기독교

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그들의 문법을 연구한 후에 “인디언 문법”을 발간하였고 또한 교리 문답서를 발간하는 등 신앙적인 지도를 아끼지 않았습니. 인디언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바뀌고 인디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미국 백인정착민과 아메리칸인디언 사이의 정복전쟁 존 엘리엇 등 청교도 선교사들, 인디언선교위해 헌신

종교를 보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했던 스페인과는 달리, 청교도 사회에서는 1636년 인디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도록 법률을 통과시켰다.

1637년 존 엘리엇(John Eliot)의 선교사역이 시작되었다.

“1637년 10월, 페쿠오트(Pequot) 전쟁이 끝나자 대패한 인디언들은 백인에게 성공을 안겨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엘리엇은 농사 기술, 목수 일, 대장장이 일, 무역 등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문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디언을 계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디언 말로 된 성경

일파만파 전파되면서 인디언 선교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1642년 매사추세츠에서는 토마스 메이휴(Thomas Mayhew, Jr.)에 의해서 인디언들에게 개인전도가 시작되었고, 1642년에는 그들에게 공식적인 설교가 선포되었다. 엘리엇 선교사의 요청에 따라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1651년 나틱(Natick)에 “기도하는 인디언 마을”을 건설하였습니다. 인디언 마을에 신정 정치를 실시하여 성경이 다스리는 사회를 세우고자 했던 엘리엇은 성경을 나틱 사회의 대헌장으로 삼고 출애굽기 18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10부장, 50부장 제도를 도입하여 스스로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엘리엇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인디언들은 금식과 기도를 생활화하였고, 인디언 사회는 경건한 분위기로 변모되었습니다”(오덕교, 청교도이야기, pp. 273-277).

그 결과 1674년까지 매사추세츠와 플리머스에는 약 4,000명의 “기도하는 인디언들(Praying Indians)”이 살고 있던 14개의 마을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존 엘리엇 선교사의 인디언 선교 성과(?)는 1675년 토지 갈등에서 촉발된 “필립 왕의 전쟁”(King Philip's War)과 함께 중단되었다. 즉, 미국 인디언 부족인 왕파노아그 부족과 플리머스 식민지를 구축한 영국군과의 전쟁 때문이다.

전쟁의 원인이 된 것은 늘어난 영국인 개척자와 그만큼 늘어난 그들의 토지 수요였다. 필립왕 같은 인디언 지도자들은 점점 잃어가는 토지에 분개를 했고, 특히 그의 신경을 자극한 것은 스완지타운 건설이었다. 그곳은 왕파노아그 족의 수도 마운트 호프에서 몇 마일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다. 플리머스 의회가 군사력을 사용하여 왕파노아그 족의 토지를 마을의 개척자에게 매각하도록 강압하기 시작했다.

전쟁의 결정적 계기는 1675년 존 사사몬이라는 “기도하는

그 결과 노예로 버뮤다(Bermuda)에 팔려간 토종 인디언을 포함하여 6,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정작된 영국 성인 남성 8%가 사망한 엄청난 참사였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 재건을 방해한 자는 침략자 바사(페르시아)인 아닌 동족 사마리아인 산발랏(느2:10)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항상 선의(善意)에 대한 도전과 응전(應2:2-3)은 항상 내부(內)의 인디언에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된다.

“인디언 성경마저 분실되어 마을마다 성경을 보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였고 엘리엇은 인디언 성경을 재판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성경 출판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엘리엇은 평소에는 교회를 섬기는 일로 바쁘게 지내고 매 주 중에는 톱스버리에서 18마일이나 떨어져 있던 나틱(Natick)의 인디언 마을까지 말을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등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존 엘리엇 선교사는 1637년부터 임종하는 순간까지 53년 동안 인디언에 대한 열려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의 한평생의 사역이었던 인디언 선교에 대하여 염려하며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쁨이여! 오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별세했다.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의 사위요 1743년부터 인디언 원주민 사역에 헌신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David Brainerd, 1718-1747) 선교사의 생애를 보면 그는 성육신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불타는 사명의식으로 원주민 인디언들을 진정 사랑했다. 자신의 삶을 인디언 복음화로 헌신, 충성하다가 29살에 별세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그리스도의 빛나는 인격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던 청교도들의 참 본래 모습이다.

kimjoyh@gmail.com

동부교계 게시판

퀸즈장로교회 설립 47주년 기념예배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설립 47주년 기념예배가 2월 28일(주일) 오후 4시에 대면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열린다. 이날 장학생 선발 글쓰기 대회 시상식도 있게 된다.

▲문의: (718)886-4400

가족관계 감정훈련

패밀리리치(원장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제 17기 가족관계 감정훈련이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는 주제로 3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열린다. 대상은 유치원과 초등생 부모로 등록비는 200달러(부부 300달러). 등록은 familytouchusa.org에서 하면 된다.

▲문의: (201)242-4432

찬양과 경배 인도자 찾음

뉴욕에네셀선교교회(담임 최창섭 목사)에서 신실하게 주일 및 수요 예배에서 찬양과 경배를 인도할 인도자를 찾고 있다.

▲문의: (516)395-8706 leesmindcare@gmail.com

강사 김재열 목사, 김종훈 목사, 양민석 목사

뉴욕교협 목회자세미나 2월 25일 뉴욕초대교회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문석호 목사)가 주최하는 목회자 세미나가 2월 25일(목) 오전 10시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에서 열린다.

교협은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며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며, 현장 참석은 40명으로 제한하고 영상(Zoom)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미나 주제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교회에 대한 이해’와 ‘주일성수(특히 주일예배)에 대한 바른 가르침’으로, 주제에 대한 이해 관점으로 ‘섬경적인 접근’, ‘교회사적인 접근’, 그리고 ‘(또는) ‘목회적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행해지는 유익한 시간일 것’이라고 소개했다.

세미나 방식은 강사 3명(김재열 목사, 김종훈 목사, 양민석 목사)의 각 강사 당 15분-20분간의 주제 강의가 있는 후 3명의 패널로부터의 질의 응답시간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청중들과의 대화와 질의 응답시간이 있게 된다.

현장세미나 신청은 2월 22일(월) 오후 5시까지 교협사무실로 전화(718-279-1414)하거나 이메일(nyckcg@gmail.com) 또는 총무 한기슬 목사(646-520-7667)에게 연락하면 된다.

신청 순서에 따라 현장 참석한 40명에게는 중식이 제공된다.

(유원정 기자)



글로벌뉴욕여성목회 제5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섬김의 본이 되자”

글로벌뉴욕여성목회 제5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 연합회 제 5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이 지난 2월 11일 오전 10시30분 가나안침성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안경순 목사가 이임하고 김희숙 목사가 5회기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조 직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회장 김희숙 △총무 김사라 △회계 조문자 목사 △특별위원 권케더린, 권케더린, 심화자, 안경순 △감사 오명영의 △중보기도회 오명영의 △어머니기도회 김사라 △선교사역 전희수 △친교사역 김희숙 △교역사역 권케더린 △상담사역 정양숙 △기도사역 박도라 △협력사역 정인숙 △글로벌합창단 김사라 안경순(이상 목사).

“섬김의 본이 되자”(막0:45)라는 표어로 출발하며 제 5회기 회장 김희숙 목사는 취임사에서 “섬김이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겸손하여 머무는 곳이 섬김의 시작이며 이곳에서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라며 “지난해 팬데믹으로 힘들었지만 올해는 어머니 마음을 전하는 구제와 선교를 실천하고, 뜻깊은 사역으로 회원간 교제와 정보교환 더 나아가 한인사회와 교계를 섬기며 셋째, 지난 4년간 진행

됐던 어머니기도회를 계속함으로 가정회 회복되는 여성 사역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임하는 안경순 목사는 “지난해 취임식에서 여러 계획을 발표했지만 팬데믹으로 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회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와 협력으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게 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새 회기를 축복했다.

이취임식은 사회자 권케더린 목사의 개회기도에 이어 이임사, 취임사, 감사패(전임 안경순 목사에게) 및 꽃다발 증정, 권면 전희수 목사, 축사 김희숙 뉴욕교협 부회장, 김진화 뉴욕목회회 회장, 폐회 및 오찬기도 오명영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권면을 맡은 초대회장 전희수 목사는 “감개무량하다”며 “섬김의 본이 되기 위해서 1)구원의 감격을 갖고 주님 섬기듯 섬기라 2)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믿음을 갖고 섬기라 3)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함으로 섬기라”고 권면했다.

1부 예배는 김사라 목사 인도로 경배와 찬양 김정길 목사, 대표기도 이희선 목사, 성경봉독 박도라 목사, 특송 김정길 목사, 말씀 양승호 목사, 헌금기도 박도라 목사, 헌금특주 뉴욕성음하프선교단, 축도 정순원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양승호 목사(북미총회 증경 총회장)는 “사실을 직면해야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창3:9-10)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들어 하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다. 나의 모습, 약함, 불일치 등을 인정할 때 인간은 승리할 수 있다”며 “내 힘으로 안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한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여목 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화상으로 진행, 60만불 기금 모금

뉴욕가정상담소 제32주년 연례만찬 성료

뉴욕가정상담소(이사장 임예스터, 소장 이지혜) 제 32회 기금모금 화상 연례만찬이 2월 10일 오후 7시30분 북미와 한국에서도 600여 명의 회원들과 화상행사로 함께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기부금 후원과 라이브옥션하고 사일런 옥션(Silent Auction) 그리고 친정 "Raise Your Hand" 등을 통해 약 6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 올해 연례만찬 수상자는 Vision-In-Action Award 김도우(미국명 Dow Kim), Living Our Values (LOV) Award 화가 김원숙과 남편 토머스 파크 클레멘트(의료기기 회사 맥트라 랩스(Mectra Labs) 대표), Community Impact Award, 한인커뮤니티 재단(KACF), 그리고 Philanthropy-In-Action Award YT Hwang 패밀리재단이다.

뉴욕가정상담소 이지혜 소장은 “처음으로 진행되는 화상행사가 기대를 넘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 지금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특히 너무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올해, 한인사회를 위한 지원이 쏟아졌다. 많은 기부로 인해 올해 모금 목표 금액을 달성했다”며 연례만찬을 통해 거둬진 기금 전액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례만찬으로 모여진 기금은 가정상담소의 연간 운영

비 30% 정도를 차지해 연간 2,500 명의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뉴욕가정상담소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501(C)3 비영리기관으로 뉴욕, 뉴저지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어린이 그리고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 뿐 아니라 법률 등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과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24시간 핫라인: (718)460-3800 www.kafsc.org (기사제공: 뉴욕가정상담소)



뉴욕나눔의집 설맞이

지난 12일 설날을 맞아 한인 노숙인쉼터인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에서 20명의 한인들이 모여 웃놀이를 하고 마음을 나누며 위로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뉴욕나눔의집

은혜와 회복의 새 믿음 도약 선언

‘뉴욕한민교회’, ‘넘치는교회’ 로 이름 바꿔

‘뉴욕한민교회’가 교회설립 46주년을 맞아 교회 이름을 ‘넘치는교회’로 바꿨다.

2010년 뉴욕한민교회 4대 담임으로 취임한 주영광 목사는 설립주일인 2월 7일 주일에 배에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창32:26-28)라는 설교를 통해 넘치는교회에 주신 비전을 선포했다. 본문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는 내용이다.

주영광 목사는 교회의 믿음의 도약을 선포하며 “지난 46년 동안 ‘뉴욕한민교회’의 역사와 정체성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고 자양

분이 됐다면, 이제는 ‘넘치는교회’가 그 뿌리 위에 줄기를 세우고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새로운 믿음의 도약을 하기 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넘치는교회’라는 새로운 교회 이름이 에스겔 47장에서 왔다”며 “그 비전은 ‘은혜와 회복’으로, 안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공동체이며, 밖으로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예배 후에는 권사 은퇴식(김선자, 윤완중, 이효연) 및 명예권사 추대식(김단희)을 가졌다.

(정리: 유원정 기자)

한부모 가정사역

(8면에서 계속)

혼자 있는 것에 대해 가족지 말고 당당하게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고후12:10)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 나에 대한 이해와 계획을 헤아리게 되면서 위로와 평안 속에 삶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속의 인물인 사도 바울은 감옥에 묶어 있었음에도 신앙의 감수를 통해 느끼는 기쁨 속에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출신이나 신분을 감안할 때(행 22장) 세상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포기치 않고 기뻐하며 복음 증거를 위해 달려 가겠다는 그의 고백을 대하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 선택 받은 자, 구원 받은 자가 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꿈꿔 봅시다.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서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빌1:18).

hyojungyoo2@yahoo.com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V NV 89139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명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www.on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교회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tner Rd., Horsham, PA 19044	킬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letr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EM)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804)560-7500, www.l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팽향후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수 요 예 배: 오후 5시 30분 새벽 기도 회: 오전 6:00(월-토) Tel: (253)536-6675, www.tacomakr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월서연합감리교회는 설명절 앞두고 사랑의 손길을 나누기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

월서연합감리교회 설명절 앞두고 온정의 손길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구진모 목사)는 설명절을 앞두고 LA 한인타운에 있는 3개 양로 병원을 찾아 양말과 간식이 든 선물봉투를 전달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마음고생이 더 심한 한인노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구진모 담임목사와 이선기 부목사, 여선교회 회원들은 지난 9일 한인타운에 있는 무궁화양로병원, 알코양로병원, 엘립양로병원 등 3개의 양로병원을 차례로 방문하고 교회에서 준비한 약 200여개의 구정선물을 전달했다.

구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가장 어렵고 고립되는 어

른들이 바로 양로병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며 "가족들의 방문도 제한됐고 바깥출입도 여의치 않은데 정신적으로도 많이 위축돼 계실 어르신들에게 설날 세배를 드리는 심정으로 설명절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건강을 잘 보존하시라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염원을 담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월서연합감리교회는 지난 1월 31일에도 LA 한인타운에서 홈리스 사역을 하는 6개 사역단체에 300벌의 사랑의 점퍼와 마스크를 전달하기도 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구세군나성교회가 제3차 코로나 극복 위한 사랑 나누기 실시하고 있다

구세군나성교회, 제3차 코로나 극복 사랑 나누기

구세군나성교회(담임 이주철 사관)는 '제3차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랑 나누기'를 1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실시하고 LA 코리아타운 한인들과 주변 이웃들에게 쌀, 마스크, 손 세정제 등 코로나 방역용품을 전달했다.

이날 아침 오전 7시부터 사 람들이 구세군 나성교회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는데, 구세군 관계자는 "오늘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미리 등록한 260명을 포함 약 300명 정도 된다"며 "이들에게 15파운드 쌀 1포, KN95 마스크 40장, 어린이용 마스크 24개(필요한 가정에게만 제공), 패션 마스크 10장, 손 세정제(스프레이) 1박스(20개), 어른용 피죤 1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주철 사관은 "예전에는 생활필수품을 나눠드려도 잘 오지 않던 한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3-4시간 전부터 줄을 서신다"며 "어느 때보다 한인 가정이 어렵다는 것을 체감한다"고 전했다.

이 사관은 "LA에 1300여 한인교회가 있다는 통계가 있다"며 "교회들이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힘을 모으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더욱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매년 자선냄비를 통해 들어오는 기부금은 100% 사회로 환원하고 있으며, 성도들의 현금과 외부 기부금, 구세군 본부에서 지원되는 사회사업비로 우리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고 있다"며 "지난해와 올해는 코비드19라는 특별한 케이스로 인해 더 많은 것들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구세군나성교회는 한인교회이지만 사역범위는 코리아타운 중심 일대를 모두 포함하며, 인근 주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히스패닉과 흑인을 비롯해 한인과 백인 등 교회에 등록된 저소득층 수천 가구에 매달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소사이어티, '시니어 생활·건강 가이드' 발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니어생활·건강가이드' 발간

소망소사이어티, 2월 소망 웹미나 개최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이분자 장로)에서 '시니어생활·건강가이드'를 발간한다.

이 책은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캐치프레이즈로 한인커뮤니티에 '웰빙'·'웰에이징'·'웰다잉'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는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가 그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노년층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시니어 필독서를 만든다고 하며 '시니어가이드'에 실릴 광고도 접수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한인사회에선 처음으로 만드는 모든 정보를 망라한 책이니만큼 광고효과도 클 것으로 자신한다"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소망소사이어티는 매월 한인사회에서 공급해 주는 주제들을 가지고 소망 웹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7일에는 신혜원 박사(UCI 생화학/의공학박사, UCI MIND 치매 및 뇌질환연구소 아시아인 메리칸 디렉터)를 강사로 바이러스 백신의 전반적 내용과 백신 접종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된 과학연구데이터를 기반으로 강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소망소사이어티 관련 자세한 문의는 (562)977-4580이나 somang@somanhsociety.org 로 문의하면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국가적 위기극복 부흥운동으로'

CMF선교원 2월 정기모임예배, 설교 강순영 목사

CMF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에서는 지난 2월 6일 오후 5시 CMF회관에서 2월 정기모임을 갖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했다.

김철민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김유진 선교사(예멘)와 강순영 목사(JAMA원로대표)의 설교로 진행됐다.

강 목사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게 했던 부흥운동(을 2:12-17, 28)'이란 제목으로 "미국의 대선 후 정치적 사회적 혼란 가운데 있는 미국의 현실을 보며 크리스천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며 "요엘서는 국가적 재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의 경교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엄청난 심판이 있고 재앙이 있다"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축복의 부흥이 있다"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또한 "유럽 등 서방세계의 기독교 윤리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미국이 성경적 기독교가 회복되어 세계선교를 이끌어가고 기독교를 보호해야 한다. 지금은 친동성애정책, 친나태, 사회주의, 모슬렘으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2월 정기모임을 마치고 기념 촬영.

강조하고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에 세워진 진실과 권위를 가지고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잘 수행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세계질서에 양장 설 수가 없게 됐다. 그러므로 미국은 신앙양심의 회복, 도덕성의 회복, 정의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데 미국이 회복되는 길은 오로지 대각성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 앞에서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형병 목사(CMF)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가정, 교회와 선교의 회복을 위하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합심기도 후 채형병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CMF는 페루의 MK특별집회를 진행했으며, 화상 결혼교실을 준비 중이고 방송결혼교실을 미주복음방송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562)483-0191로 하면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미주복음방송개국 30주년 축하 감사예배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 개국 30주년 축하 감사예배가 3월 11일(목) 오전 10시 은혜한인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선물이나 화환은 사양하며 좌석이 한정되어 참석자들의 예약이 필요하다. 본 감사예배는 GBC YouTube Channel을 통해 실시간 동참할 수 있다.

▲문의: (714)484-1190

미주문인협회 신년하례예배 및 회장 취임식

미주문인협회(이사장 정지훈 목사)는 2월 정기 월례회와 신년하례예배 및 송종록 회장 취임식을 2월 27일(토) 오전 10시 로텍스 호텔에서 개최한다. 문인협 임원진은 회장 송종록 목사, 부회장 손문식 전도사, 사무국장 조이정, 이사장 정지훈 목사다.

▲문의: (323)734-1001

세리토스선교교회 임직감사예배

세리토스선교교회(담임 방상용 목사) 임직감사예배가 2월 21일(주일) 오후 3시 세리토스선교교회 본당에서 Live 동영상으로 열리며, 임직자들은 다음과 같다. △장로임직 정경석, 정래섭 △집사 임직 강창식, 이용탁, 정동섭 △집사취임 김민철 △권사취임 김숙현, 김영심, 이성자, 최영인.

▲문의: (562)402-2919

EM 사역자 청빙

남가주커뮤니티교회(담임 박종진 목사, 8803 Whittier Blvd, Pico Rivera CA 90660)는 EM사역자(유초등부 1명, 중고등부 1명)를 청빙한다. 자격요건은 △현재 공인된 신학교 M.div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 △신분에 결격사유가 없는 영어 한국어가 가능한 자. 사역 시간(Part, Half)은 면접 시 논의한다. 지원 서류는 △이력서 △개인 또는 가족의 최근 사진 △자기 소개서 △신앙 간증서 △추천서 2부이며 서류는 이메일(gpbaraka@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gpbaraka@gmail.com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 회장 장경일 목사 소천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 회장 장경일 목사(원페밀리교회 담임)가 코로나19로 2월 11일 새벽 별세했다. 향년 53세.



장경일 목사

고 장경일 목사는 2주 전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었다. 고인은 병원에 입원해서도 환자들과 의료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위로했다.

장 목사의 지인에 따르면 장 목사는 주위 환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호흡곤란 중에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등 말씀으로 사랑을 전하고 힘을 북돋웠다. 장 목사의 이런 모습을 보고 감동한 병원 측은 장 목사의 가족들을 불러 임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 회장 김현수 목사는 "고 장경일 목사는 사우스베이 지역 1세 목사들과 2세 목사들 사이를 잇는 징검다리로 노력해왔다"며 "고인의 헌신을 아는 사

람들이 한마음으로 고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왔다"며 말을 잊지 못했다.

고 장경일 목사는 UCI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던 중 고교 TD모임에서 은혜를 받고 늦게 목회를 시작했다. 늦게 시작한 만큼 누구보다 헌신하는 자세로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겼다. 국제갈보리채플과도 깊게 교류해와 전 세계 갈보리채플에서 고인을 위해 기도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리사 장 사모와 두 아들이 있다. 천국환송예배는 2월 20일(토) 원페밀리처치(19208 Vermont Ave, Gardena, CA 90248) 주차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리: 박준호 기자)

LA총영사관, 한국어교육발전모색 온라인협의회 개최

LA총영사관(박경재 총영사)은 지난 1월 27일 오전 10시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 관계자와 한국어교육발전 방향모색을 위한 Zoom 온라인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박경재 총영사, 한상진 주미대사관 교육관, 미주 지역 교육원장 7인 및 변지애 LAUSD 교육장, 모니카 류 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 박미정 AATK 부회장, 미주 한국어재단 이선근 회장, 수지 오 IKEN 이사장, 김선미 NAKS 총회장, 류기형 KOSAA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College Board의 SATII 폐지결정으로 한국어교육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미주내 한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층위의 지원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모든 관계자들이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AP 한국어 과목 채택을 위한 한국어교육 관계자뿐만 아니라 동포사회, 한국 정부와도 함께 힘을 모으되 대상별·수준별·교육기관별로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고 한국어교육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박경재 총영사는 "AP 한국어 과목 채택 논의가 나온 지 오래 됐는데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초·중·고 및 대학의 한국어교육 현황 파악, 온라인 및 한국문화코스 등을 포함한 정규학교 한국어보급 확대, 한글학교교육 내실화, College Board와의 협의 등을 위해 각 기관별 노력을 경주하면서 정책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SNS 없이는 못 사는...

(4면에서 계속)

'소셜 딜레마'에서 가장 좋은 내용 중 하나는 기본 인간 상호 작용이 좋은 나쁜 것 사이에 소셜 미디어로 인해서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었다. 얼마든지 로맨틱한 관계로 이어질 수도 또는 진지한 토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의견이 이제는 다인스타그램 속 '좋아요' 또는 짧은 댓글로 대체됐다. 이런 측면에서 '소셜 딜레마'는 끊어지지 않는 온라인 연결로 인해서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또 왜 바뀌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만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 얼마나 왜곡된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없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당신의 눈에 맞춰진 세상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양극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모두가 똑같지 않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치시선이면 특히 더 소셜 미디어 앱을 통해 특정한 내러티브가 생성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갖는 정치적 인식이 형성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일은 전국 각지의 교회에

서도 일어난다. 내 뉴스 피드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회와 사역자 또는 유명한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유튜브 동영상들 클릭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유튜브 알고리즘은 동일한 기독교 지지자나 사역에 대해 비슷한 비판을 가진 사람의 동영상을 추천한다. 그 동영상에 비판하는 특정 교회나 특정 지도자를 개인적으로 모르는 경우라면, 나는 자연스럽게 잘못된 정보를 믿게 될 것이다. 더 나쁜 것은 이런 비디오 기사를 공유함으로써 온라인적 불일치가 아닌 노골적인 비방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왜 소셜 미디어인가?

소셜 미디어 조작에 맞서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조작당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다큐멘터리가 성취한 일이다. 나는 결코 넷플릭스를 좋게 보지 않는다. 그러나 스트리밍 서비스에 이 다큐멘터리를 추가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아아러니 하기도 넷플릭스 알고리즘 때문에 내게 이 다큐가 추천됐다).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다. 무엇보다 잠언 9장에 나오는 지혜(Lady Wisdom)에 주목해야 한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차분한 설 맞이, 나눔은 넘쳤다

교계, 소외이웃에 희망박스 등 전달

코로나19로 여는 때보다 차분하게 맞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소외된 이웃을 찾아 예수 사랑 나눔 활동을 펼쳤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와 국제구호개발기구 굿피플(김천수 회장)은 10일 코로나19로 지쳐있을 취약계층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했다. 양 기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다니광장에서 '2021 설맞이 사랑의희망박스 나눔' 행사를 가졌다. 굿피플은 즉석조리 식품, 고추장, 참기름 등 식료품과 손 소독제 등 27개 물품을 담은 '사랑의 희망박스' 5000개를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전달했다. 모두 5억원 상당이다. 굿피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유

지조차 힘든 취약계층과 급격히 상승하는 물가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다양한 식료품을 담았다고 전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를 주변의 홀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 5000세대에게 전달했다.

굿피플 이사장이기도 한 이영훈 목사는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희망을 전하고자 이번 사랑의희망박스를 준비했다"며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설날에 외로운 이별 없이 모두가 따뜻한 사랑 속에서 즐겁게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천수 회장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외로움이 커지

는 설 명절에 홀몸 어르신, 다문화가정 등에 위로를 보내고자 사랑의희망박스를 준비했다"며 "사랑의희망박스가 추위를 녹이고 정을 나누는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굿피플은 2012년부터 매년 연말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희망박스를 전달해 왔다. 전국 각지의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케냐 베트남 인도 등의 해외 취약계층도 포함했다. 지금까지 나누는 사랑의희망박스는 약 207억원 상당에 이른다.

지난 8일에는 한국교회봉사단(한교봉·이사장 정성진 목사)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이 서울 용산구 동자동과 중로구 돈의동 쪽방촌에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는 '2021 설날 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한교봉과 한교총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예년에 하던 공연을 생략하고 쪽방촌 교회와 주민협의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한과선물세트를 전했다. 한교총은 방역 마스크 10만장도 전달했다.

같은 날 구세군 한국군국(구세군·사령관 장만희)도 서대문사랑방, 돈의동쪽방상담소 등 17개 복지시설과 소외계층에 4000kg 상당의 쌀과 돈육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설 나눔은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금융권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나눔' 행사의 하나로 진행됐다. NH농협은행이 돈육 농가를 살리기 위해 돈육세트 등을 지원했다.

장만희 사령관은 "코로나19로 차가운 겨울이었지만, 여전히 마음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감사하다"면서 "이번 나눔이 소외된 이웃에게 풍성한 명절을 선물할 뿐 아니라, 이웃들의 일상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번져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월로컬럼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해를 품은 달

45년 전의 일이었다. 독일의 수도 본(Bonn)에 갔을 때, 베토벤하우스를 구경했다. 거기에는 베토벤이 직접 사용하던 피아노를 비롯해서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이 박물관에 잘 전시되어 있었다. 그 후 나는 박물관 뒤에 있는 조그마한 정원을 구경했다. 그 작은 정원은 베토벤의 그 유명한 월광곡(Moon Light)의 악상을 얻었다는 장소였다. 베토벤의 월광곡이란 후에 부쳐진 이름이지만 본래는 피아노 소나타 14번이라고 했다고 한다.

한국 사람은 유독이 둥근 달 만월을 좋아한다. 그래서 정월 대보름달과 추석의 만월을 향해 소원성취를 빌고, 복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나 한국의 토속신앙에는 달을 이상시하고 있다. 그리고 작품 속에서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는 달에 대한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나라 전래동요(구전동요) 가운데도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저기 저기 저 달 속에 계수나무 박혔으니/옥도끼로 찍어내어 금도끼로 다듬어서/초가삼간 집을 짓고 양친부모 모셔다가/천년 만년 살고 지고 천년 만년 살고지고'는 유교사상이 생활화 되어 있는 서민계층의 생활 감정이 잘 나타난 참으로 낭만적인 전래동요이다. 같은 달을 숭배하는데도 한국 사람은 만월을 좋아하지만, 이슬람은 초승달을 좋아한다. 이슬람 국가의 국기는 대부분 초승달이 그려져 있다. 만월은 곧 기울어지거나 초승달은 점점 둥글어진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10여년 전 MBC에서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었다. 그 작품은 조선시대에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를 그린 로맨스드라마였다. 그런가 하면 '달이 뜨는 강'이란 드라마도 있었다. 최근에는 어린이 영영 동화에는 '햇님 달님'이란 것도 있다. 해나 달을 의인화해서 '님'을 붙이는 것을 한국에서는 다반사이다.

그런데 구약성경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옛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고대 종교의 발상지로서 주로 일월 성신을 섬겼다. 특히 달신(月神)을 섬기는 우상종교를 믿는 지역이었다. 그들은 달을 섬길 뿐 아니라 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도 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바로 달신 우상장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5세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야웨 하나님 유일신 종교의 조상이 되도록 했다. 즉 우상종교를 타파하고 유일신 야웨의 하나님, 창조주요, 구속주 하나님을 섬기는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다. 먼저 우상인 달신 종교에서 벗어나야 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고 달신 우상의 땅 우르를 등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순례의 길을 떠난다. 그것은 아브라함으로는 위대한 신앙의 결단일요, 새로운 언약 종교요, 계시의 종교요, 새로운 세계관으로 돌아서는 사건이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을 보면서 종교적 이상을 꿈꾸기도 하고, 왕권을 휘두르기 위한 방편으로 삼기도 했다. 이런 것이 종교에 혼합되어 새로운 세계관을 열기도 했다. 예컨대 로마카톨릭은 기독교의 본질인 성경의 복음에서 아주 벗어나서 태양신 종교로 둔갑한 케이스다. 로마카톨릭의 모든 건물과 의식에는 태양신과 연관된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로마카톨릭이 마치 기독교인척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거기다가 바벨론어신 종교를 받아들여 마리아를 신격화 하고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혼합종교가 되었다.

그래서 16세기의 교회개혁자들은 태양신 종교로 변질된 것을 다시 성경중심, 복음중심의 교회로 바로 세우려는 운동이 있었다. 그래서 Sola Scriptura, Sola Fide, Sola Gratia를 외치고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탄생시킨 것이다.

일본도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이다. 과거 일본이 한국교회를 박해하면서 일본의 태양신을 섬기도록 강요하고, 불복자는 감옥에 가두었다. 또한 오늘의 북한도 김일성을 태양으로 하는 태양신 종교가 바로 김일성 종교이다. 김일성의 태양신 종교는 전 세계의 종교 가운데 열 번째로 큰 종교이다. 이 태양신 종교야래 모든 주민이 교인이고 김일성 태양종교는 모든 인권을 얻어내는 이단 종교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한국에도 김일성 태양신 종교를 사모하고, 따르고 사랑하는 달님 종교가 생겨났다. 즉 '해를 품은 달'이 한국 상공에 떠 있다. 지난 24일 대통령의 생일날 KBS 열린음악회에 북한의 인공기를 연상케 하는 화면을 띄우고, 마지막에는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Song to the Moon)'로 엔딩을 했다. 그리고 KBS는 시청료를 올려 평양에 KBS지국을 설립한다. KBS가 미처도 아주 단단히 미친 것 같다.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달님이 태양을 품고, 애타게 사모하고, 퍼주고,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태양신도 달신도 사실은 모두 헛된 우상숭배이거늘 이 나라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휘영청 밝은 달만 쳐다보면 그만인가?

skc0727@yahoo.com

“서울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종교 자유 침해” 예정합신 동성애대책위 철회 촉구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신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허성철 목사)는 15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예정합신 동성애대책위 소속 목회자 10여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

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성에 관한 교육과 인권 교육은 헌법에 기초한 '양성'을 기본으로 교육해야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양성평등에 기초하지 않고 제3의 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 한다"며 "동성애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청소년기 학생들이 바르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도록 하는 교육을 막고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성 소수자 학생들의 성별 정체성 혼란을 단순히 인권으로 인정해야만 하는 계획, 창조원리에 따른 타고난 양성으로 교육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사악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동성애의 보건상 피해를 언

급하는 교사를 억압할 수 있다는 점과 헌법에 근거한 '양성평등'이란 용어 대신 젠더이데올로기가 반영된 '성 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편향된 젠더인권 교육을 학생들에게 주입한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에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편향적인 젠더인권 교육을 중단하고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보편적·도덕적 인권교육 정책을 펴달라고 요구했다.

대학가 뒤흔든 신천지 의혹

전남대 학생회 간부 신도로 의심...임원진 모두 사퇴

간부가 재학생을 상대로 신천지 교리 포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남대 총학생회 임원진이 결국 물러나기로 했다.

전남대 총학생회장 A씨는 학교 내부 통신망을 통해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하며 오는 15일 예정된 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마치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부회장 B씨는 이미 지난 2일 사퇴했다.

이들의 사퇴 이유는 최근 B씨가 신천지 신도라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전남대 재학생들이 모인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B씨가 신천지 신도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폭로 글이 올라왔다.

전남대 재학생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신입생이던 2019

년 당시 입학식장에서 2021년도 현 학생회 관계자 B씨와 신천지 신도 2명으로 이뤄진 3인 1조에게 소모임 가입을 권유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B씨가 단둘이 식사를 하기로 약속한 자리에 느닷없이 다른 사람을 데려와 소개한 일이 있었다"면서 "신천지 측의 전형적인 전도 수법으로 의심되며, B씨와 함께 소모임 가입을 권유한 다른 두 사람이 신천지라는 사실은 명확히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하루 뒤인 31일 입장문을 내고 "난 신천지 신도가 진짜로 아니며, 해당 소모임에서 부조장으로 활동했으나 다른 구성원들이 신천지였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게 됐다"면서 "내 불찰로 인해 신

천지와 엮이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B씨는 자신이 다녔던 교회 교육적 과외와 온라인에 배 참석 기록이라며 의혹을 반박하는 자료를 남기고 사퇴했다. 하지만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고 위조의 흔적이 보인다는 이유로 재학생들은 신빙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총학생회장 A씨도 "이번 논란으로 인해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학우분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책임져야 할 일을 책임진 후 이 자리에서 내려오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를 전했다.

사이버·이단 종교문제 연구소 현대종교(소장 탁지원)는 이단들이 '에브리타임'과 같은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소모임을 만들어 신도를 모집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전했다. 또한 활동이 뜸해 유

명무실해진 동아리를 장악하거나 이번 사례처럼 총학생회 장악까지 시도해 위장 포교에 나서는 일도 있다.

탁지원 부산장신대 교수는 8일 "학교나 재학생들을 직접 상대하는 총학생회를 장악한다면 대표성과 공신력을 갖고 보다 더 쉽게 교리 포교에 나설 수 있기에 이단들로서는 지속해서 학생 자치 기구를 장악하려 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캠퍼스 출입이 어려운 상황과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교육 환경을 틈타 이단들이 총학생회를 수월하게 장악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학내 기독교 동아리 연합회나 기독교 교수 연합회 등의 차원에서 학생회 선거철 등 주요 시기마다 후보자나 단체에 대한 이단성 검증에 나서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HN, 한국교회에 '단순한 삶' 실천 제안

"기후붕괴 막기 위해 종교인들 행동 나서야"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생태 문제의 중요성이 드러난 가운데 기독교적 대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다.

사단법인 코리아네이버스(KHN·이사장 이정익 목사) 산하 KHN학술원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는 9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국제대학원 정하상관에서 '환경문제의 제반

쟁점과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신년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2016년 설립된 KHN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도모하고 세계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상황을 분석하는 학술활동 등을 하고 있다. 주제발제를 한 이정익 이사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로 신음하고 있다"며 "학자들은 기후변화라는 단어

대신 기후붕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인류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모든 종교 속에 담긴 녹색의 가치가 빛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붕괴는 다음세대의 미래를 빼앗고 빈곤을 심화시킨다"며 "기후붕괴를 막기 위한 종교의 역할과 사명이 중요한 시점이다. 기후붕괴를 주제로 종교인과 환경단체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보호를 위한 한국교회의 실천 방안으로 '단순한 삶'을 제안했다. 그는 "우

리나라는 1인당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일엔 열심이었던가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기술은 온전히 익히지 못했다. 최소한의 물질로 사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한국교회는 교회 수입의 십일조를 환경단체와 환경을 위해 활용하길 바란다"며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신학대에서는 생태·환경 교육을 하고 목회현장에선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혜 한세대 총장 별세

김성혜(사진) 한세대학교 총장이 11일 7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조용기 원로목사의 부인인 김 총장이 지병으로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최근까지 이 병원

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으로는 조 원로목사와 장남 희준, 차남 민제 국민일보 회장, 삼남 승제 한세대 이사가 있다.

김 총장은 조 원로목사와 함께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설립한 고 최자실 목사의 딸이다. 1965년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1995년 미국 맨해튼음악대학 석사, 2008년 미국 오렐로버츠대학교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9년 한세대 부총장을 거쳐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세대 총장을 맡아왔다. 2014년에는 조선일보 선정 '2014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인재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장례는 5일장

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장으로 치러진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오는 15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장례예배를 갖는다. 장례예배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며, 대성전에는 유족을 비롯해 50명만 참석할 예정이다.

장지는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최자실기념공묘사기도원 묘원으로 정해졌다.



“우울증과 영적 치유” (34)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영적 처방: 7. 하나님의 음성 듣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10:27-28).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들으신다.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그분을 기쁘게 해야 한다. 30일 동안 매일 30분씩 기도하라. 하나님께 15분간 말하고, 15분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의사소통이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음성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

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모셔 드린다. 마음을 정하게 하고 조용한 가운데 귀를 기울인다. 복잡한 생각을 모두 떨쳐버리고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을 적는다. 하나님께 드릴 질문도 또한 적고는 조용히 기다린다. 문외한 질문에 답을 주시면 적는다.

처음부터 마음을 정리하고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계속 실행하면 곧 들을 수 있게 된다. 이 기도를 하는 동안 개인적인 기도를 더하며 날짜를 쓴다.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하

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기도에 답을 하시는지 알게 하신다. 당신의 기도예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고 하면 기도를 바꾸어야 한다. 바울 사도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이들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음성을 듣지만 그 음성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므로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게다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음성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떤 음성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구별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기 시작할 때 사물을 명확히 바라볼 수 있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다.

고, 악한 것을 행하게 하는 죄악적 사고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부여하신 선한 일을 행하고 싶은 성품도 가지고 있다.

사탄의 음성은 본질적으로 기만적이면서 파괴적이다. 만약 우리가 그 음성을 받아들이고 따른다면, 우리는 죄악에 빠져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수용한다. 그때가 바

어떤 생각이 마음에 떠오를 때마다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구별해야 한다. 모든 음성이 당신의 생각이 아니다. 각각의 음성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요청하라. 사탄의 음성을 저항하지 않으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당신이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뒤를린 음성을 물리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 어떤 파괴적인 것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의문을 갖고 평가해야 기만당하지 않게 돼”

로 그들이 혼란의 음성에 무력해지는 시점인 것이다.

성령님도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신다. 성령님은 우리들의 잘못된 것도 지적하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신다.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성경 말씀을 사용하시며, 또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우울증에 걸린 많은 사람들은 파괴적인 음성에 쌓여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내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상담할 때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연습하라 말한다.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더 많은 연습을 하면 음성의 구별이 더 쉬워지고 혼란과 너무 많은 생각으로부터도 치유를 얻게 된다. 그 어떤 파괴적인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문을 가지고 평가해야 기만당하지 않게 된다.

yonghui.mcdonald@gmail.com

물게 하려 함이라”(고후12:9).

사로잡힌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단련시키라. 하루 종일 다음의 기도를 하라: “사랑의 예수님, 제 삶과 저의 모든 것을 당신께 내려놓습니다. 저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주님의 계획이 저의 모든 계획보다도 더 좋사오니 내려놓습니다. 저의 굳은 마음을 깨 주시고 저를 새롭게 만드소서 저의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씻어 주시어 주님이 제게 말씀하실 때 요동치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네 가지 음성:
사람들이 마음으로 듣는 네 가지의 음성이 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1) 다른 사람들의 음성 (2) 우리 자신의 음성 (3) 사탄의 음성 (4) 성령님의 음성.

다른 사람들의 음성은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 우리가 이미 들은 것들이 마음속에 들리는 것일 수 있다.

우리 자신의 음성은 우리의 생각이다. 어떤 음성을 받아들이거나 저항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는 죄악적 본성을 가지고 있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 (P국, 중동선교전략가)

원 스토리 2강 / 하나님의 형상(창 1장)

하나님의 형상

성경은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신 받아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창조 전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의 상태입니다.

들의 빛이라”(요1:1-4).

3. 하나님은 그 흑암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으로(사 44:21), 자녀로(시2:7)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들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사 51:16/참고 호2:23).

바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셨고 구속하셨고 지명하셨고 하나님의 것이라 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름아 너

세상과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별됨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15:19).

3.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다시는 섞이면 안됩니다. 아니, 다시는 섞일 수 없습니다.

3. 또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엡 5:18). 그리고 성령은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엡6:17).

4. 그리고 충만함을 계속되어 져야 합니다.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살전5:19).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충만히 채우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어도 그 마음은 반드시 세상 어떤 것으로든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의 회중에 들 수조차 없었던 과거를 향해 보아스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룻기)

4)바로 그 이야기가 소망 없는 미래를 향해 도망가 신세가 된 다윗을 향한 왕자 요나단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요(삼상18:1-4, 20:17) 5)바로 그 이야기가 다윗이 간음과 살인(삼하11장), 심지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범죄(삼하12:10) 후에, 바로 그 여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 솔로몬을 향한 신 하나님의 사랑이요(삼하12:24,25)

6)바로 그 이야기가 포로로 잡혀 온, 부모도 없는 고아와 같은 에스더에게 아하수세로 왕을 통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요(에스더서) 7)바로 그 이야기가 보잘 것 없는, 계달의 장막과 같은 솔로미 여인을 향해 솔로몬을 통해 부르신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이요(아가) 8)바로 그 이야기가 패역하고 패역하고 거듭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신 하나님의 사랑이요(신

였노라’하시는 하나님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말1:2)로 대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위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요3:16).

3.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새 계명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 또한 이것은 온 율법의 완성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끄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하라 하신 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나니”(갈5:13,14/참고 롬13:10).

4.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며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이웃(약 3:9)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레19:18/마 22:37-40).

5.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회복된 사랑은 형제와 자매를 넘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며(마 5:43,44/눅6:27-36)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까지도 일흔 번에 일곱 번까지 용서하는 것입니다(마18:21-35).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 사랑을 증거하셨고 마침내 신약에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 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을 달라 하십니다.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신6:4,5, 10:12, 13).

hfamilyfa@gmail.com

본질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오직 그 사랑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것...그 사랑이야기가 성경

제자리에 두심으로 채우심

빛으로 부르심

1. 그와 같이 본질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엡 1:4) 오직 그 사랑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엡2:4, 5).

2.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

구별하여 세우심

1.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이 되어 세상과 구별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레20:24-26/참조, 출 8:23, 11:7).

2.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심도 세상 속에서 선택하심으로

1.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다시 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요 6:35).

2.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다는 것은 성령으로 채워짐을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 14:26).

성경은 말합니다. “빌기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행4:31, 32).

만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창조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가는 성경의 역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2.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요 14:16).

1)바로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창22장)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요 2)바로 그 이야기가 야곱이 누굽도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창37:3) 죽임의 자리로 보낸 사건(창37:13)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요 3)바로 그 이야기가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

7:7,8, 10:15, 23:5) 이들을 향해 부르신 포도원 노래이고(사5:1)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질 만큼 사랑하고야 마실 사랑이요(에 2:11)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베푸실 사랑입니다(겔39:25).

9)또한 바로 그 이야기가 결혼 전부터 음란한 여인이었고 자식들을 낳고서도 음란하여 도망친 아내 고멜을 다시 사오는 남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드러내신 그 바로 같은 말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요(호 3:1-5) 10)바로 그 이야기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호소하시며 그 불붙는 긍휼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요(호11:8)

11)바로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극진한 사랑, 불쌍히 여기실 하나님의 사랑이요(골2:18) 12)바로 그 이야기가 그 말도 되지 않는 패역한 백성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이요(습3:17) 13)바로 그 이야기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

5.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회복된 사랑은 형제와 자매를 넘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며(마 5:43,44/눅6:27-36)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까지도 일흔 번에 일곱 번까지 용서하는 것입니다(마18:21-35).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 사랑을 증거하셨고 마침내 신약에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 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을 달라 하십니다.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신6:4,5, 10:12, 13).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훈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시13:1-2)

신실하고 경건한 성도가 가장 괴로운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요?" 언뜻 듣기는 아주 믿음에 있어 보이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탄식 같지만 이 기도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경건한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외침인 것입니다. 2절 말씀도 "나의 마음속에 경영하는 것을 쌓

아둔다"라는 뜻으로써 마음속으로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쌓아둔다는 뜻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께 나와 "어느 때까지입니까?"라고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탄식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고 결국은 주님께 더욱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 나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시13:3-6)

신실하고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이 멀리하시는 고통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더욱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매력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왜냐하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자고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조롱하며 기뻐하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내

가 실패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가지고 원수가 기뻐하는 것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 주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미 마음에 응답을 받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후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다(시14:1-4)

시14편은 53편과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며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그 종말에 대해 자세히 보여 주는 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기도도 내가 알아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주목해야 할 구절은 3절입니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

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강조형을 사용함으로써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은혜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목 어리석은 자의 모습(1)(시14:1-4)

본문에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나뭇잎이나 꽃이 시들어 가고 떨어지고 색이 바래서 죽어 가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영적으로 표현하면 지혜와 이성 그리고 정직함과 경건함이 모두 빠져나간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러한 상태에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감사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그 결과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불신자가 되는 것은 그의 머리에서가 아니라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진정 믿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금 어리석은 자의 모습(2)(시14:1-4)

어리석은 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3절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더러운 자가 됐다"는 뜻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더러운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말씀한 구절 한 구절이 들려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특별히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잠13:20). 진정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며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순종하게 돼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토 어리석은 자의 최후(시14:4-7)

어리석은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성도들과 함께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징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절에 어리석은 자들의 종말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공포가 이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마음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결국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 찬 가운데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주님이 우리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요!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3)

작은 변화를 결단하는 신앙!



이희갑 목사
(이주사퍼시픽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다니엘서를 통하여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 시험을 당하고 이를 믿음으로 극복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이를 통하여 더 크게 사용하신다

는 원칙이다.

결국 믿음이란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한다. 믿음이란 시험이 올 때 나의 개인적 동기나 이익을 위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과감하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의 손해되는 길을 택하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포기하게 되지 않던가? 그런 사람을 히브리서 11:38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다니엘 1장은 포로로 잡혀간 그가 마주쳐야 하는 두 가지 시험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왕의 음식을 먹는 것(단1:5)과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단1:7)이다.

첫번째 시험은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이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고친 것

그런 그가 왕이 지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이렇게 다짐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단1:8).

필자는 여기서 감격한다. 악과 부딪칠 때, 악과 타협하고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칭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은 괜찮지 않을까? 작은 것인데 뭐 큰일이 나겠어? 누가 보지 않았으니 별 탈 없겠지, 나만 그런가? 모든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될 거야! 해봤는데 안 되잖아, 이 방법 밖에는 없어... 악과 타협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지만 그러나 15살 다니엘은 달랐다.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바벨론 왕의 명령을 그는 그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웠다.

놀랍지 않은가? 한 중학생이 자기 나라도 아니고 외국에서 그것도 자기 부모와 떨어져 사는 포로의 신분에서 이방의 습관을 따라야 한다고 했을 때 이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와 함께 잡혀간 많은 유대 젊은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바벨론 왕이 명령한 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고민했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

성경은 그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였다고 적고 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 바벨론 왕에게 드러지는 고기(음식)와 포도주는 바로 바벨론 이방신(마둑/벨, 느보, 이스타르 등으로 불려지는)들에게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신에게 드러지는 음식을 금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할

시험 때 마음 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기억하라

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일제시대에 한국 사람을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창씨개명의 상황과 유사한 것이다.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한다. 유대 이름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뚜렷이 가지고 있었다. 바벨론은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고 바벨론의 의식구조로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의도에서 이름을 바꾸었다.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미사엘은 하나님과 닮은 자, 아사라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서 그들은 그들의 이름이 바뀌어지게 된다. 다니엘은 벨트사살(바알의 왕자), 하나님은 샤프락(바벨론의 태양신인 아쿠로부터 비쳐지는 자), 미사엘은 메삭(비너스 신 같은 자), 아사라는 아벳네고(바벨론의 신인 니보의 종). 15살의 청소년들이 낯선 나라에 끌려가 일방적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일을 거역할 수 없는 일 아니었는가?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다니엘서를 통해 그는 자신의 이름을 다니엘이라 계속 지칭하고 있다.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금식할 수도 공공연하게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던가?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부탁을 한다. 그렇다 해도 이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음식 메뉴는 왕이 직접 명령한 것이므로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곧 왕명을 거역하는 것이고 곧 이는 큰 형벌을 감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원래 바벨론 사람은 잔인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던 기도가 아니었던가? 느브갓네살왕이 유다 마지막왕인 시드기야를 어떻게 죽이는지 기록을 보라.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렘39:6).

다니엘의 고민과 결심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었다. 왜? 그것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비록 이름이 어쩔 수 없이 바벨론식으로 바뀌어졌다고 해도 그의 중심과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리와 성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15면으로 계속)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경구피임약

경구피임약 개발이 여성해방운동의 촉진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즉, 경구피임약으로 인해서 '여성'은 스스로 자기 육체의 완전한 주인이 되어야 하고, 원하는 아이는 축복 속에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말의 최초의 피임도구를 만든 미국의 간호사이자 여성운동가인 마거릿 썬거 여사의 말이다.

-결혼을 앞둔 20대 후반의 직장 여성 나 모 씨는 피임약 복용을 상의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왔다. 나 씨는 자신의 월경 주기가 결혼식 날짜와 겹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줄이고, 결혼 후 1년 동안은 아이를 갖지 않고 신혼을 즐기고 싶어서 경구피임약을 복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주위에서 피임약을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고 살도 찐다고 해서 망설이다가 의사를 찾아왔다.

현재 가장 성공률이 높은 피임방법은 경구피임약으로 제대로 복용할 경우 거의 100%에 가까운 피임률을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이 방법은 아이를 원할 때 원하는 시간에 가지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흔히 복용하는 피임약은 복합제제 경구피임약인데 두 가지 호르몬(황체호르몬과 난포호르몬)을 합성해 만든 것으로 3주 동안 하루에 한 알씩 복용한다. 그 다음 7일간은 복용을 중지하는데 이 기간에 월

경 비슷한 출혈이 약간 있기도 한다. 3주 동안 약을 빼뜨리지 않고 복용하면 약을 먹지 않은 일주일 동안은 임신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을 하루라도 빼뜨리게 되면 호르몬 분비로 배란이 되어 임신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하루를 걸렀을 때는 12시간 내에 2알을 먹으면 황체호르몬 분비를 막아서 피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만약 12시간이 지났으면 7일 동안 혹은 나머지 정제를 모두 복용할 때까지 성관계 시 콘돔 등을 사용해야 한다. 경구피임제의 부작용은 오심, 구토, 유방통, 체중 증가,

소화 장애 등이 많은데 이는 피임약 복용 시 체내 대사, 심혈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사용되는 경구피임제의 경우 난포호르몬의 용량을 줄임으로써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었다. 또 유방암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설도 경구피임제의 영향보다는 유방암 조기검진에 일반화되면서 암을 조기 발견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더 일리가 있다. 오히려 경구피임제는 자궁내막암과 난소암의 빈도를 더 줄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월경통을 줄여주고, 월경으로 인한 빈혈을 예방하며, 골반 내 염증 질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경구피임약을 복용할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

잘 알고 복용해야

자. 35세 이상의 흡연자는 심혈관 질환, 특히 하지 혈전을 증가시키므로 경구피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 현재 임신 계획 중이거나, 중풍을 앓았거나, 급성 간 질환을 앓고 있거나, 혈중 중성지방이 아주 높은 경우, 과거에 유방암이나 자궁암을 앓은 경우는 경구피임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월경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경우도 다른 이상이 있는지 검사한 후에 피임약 복용을 결정해야 한다.

▲문의:213-383-9388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26.가정의 행복과 책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직접 만드신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이 세상이 붕괴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가정이 하나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구성원들이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행복이 힘쓰고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0:34-37를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산으로 놀러 간다든지 식구들 내어주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아내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남편은 가정의 제사장, 가정예배의 인도자로서, 가정에서의 영적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예배, 가정성경공부, 교회 공예배 참여, 사회 속에서의 전도활동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 아내의 책임과 역할 남편 못지않게 가정의 행복을 위한 아내의 책임과 역할도 큼니다. 한 가정의 아내 혹은 어머니는 그 가정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크리스천 아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자유권을 주셨지만 잘못 사용하여 아담과 함께 온 인류를 망쳐놓았기

가정의 대표인 남편은 사랑과 희생으로 가족 책임져야 가정의 행복과 불행 결정하는 아내는 남편에 순종해야

로 생각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와, 딸이 어머니,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부모자식간, 고부간에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행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인데, 신앙적으로 하나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신앙적, 영적인 불화로 인한 가정의 싸움인 경우는 가정의 참된 평화를 위해서는 분쟁과 다툼도 감수해야 하고, 가정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육신의 애정이나 인정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행복을 위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힘써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22-2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 범죄 이후 여자에게 자유권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5:33에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경외'란 말은 헬라어로 '포베다이톤'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두려움을 갖고 존경하라 (2)사랑하고 흠모하라 (3)먼저 대접하라 (4)관심을 기울이라 (5)명예롭게 하라 (6)찬양하라 등입니다. 아내로서 이런 자세 없이 가정의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1. 남편의 책임과 역할 남편은 아내의 머리(고전 11:3), 가정의 대표자로서, 가정의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결혼한 후 하나님 앞에 무거운 책임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말만의 입술에 발린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이같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므로, 참된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축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14면에서 계속)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녀들이 꼭 기억해두어야 할 말씀이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성경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단1:9)고 기록하고 있다. 두 가지가 명심하자. 첫째,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음을 기억하자. 믿음은 환경의 변화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닌,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 주심을 명심하자. 환경의 변화를 먼저 보고 결단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둘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기억하자. 비록 외국의 전혀 다른 삶의 환경과 조건에 그들은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떳떳한 삶을 유지했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은가?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담대하게 환관장에게 제안을 한다. 그들에게 채식으로 10일간 먹게 해준 후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 후에 결정하라고. 제안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10일후에 그 결과는 어땠는가? 성경은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보였다(단1:15)고 기록한다.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도 될 수많은 이유가 있었다. 15살이라는 어린 소년, 포로로 잡혀와 먼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부모 형제와 함께 살지 못하는 신세, 스스로 결정하기에는 수많은 제

약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 등등!!! 그런 환경에서 설령 다니엘이 왕이 지정하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다 해도 우리는 그를 비방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는 뜻을 정했다(단1:8). 그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중심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 자녀를 키워야 한다.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다니엘의 부모는 다니엘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던 것 같다. 우리 모두 그런 부모가 되자. 그러면 우리 자녀가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이 된다. hlee0414@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including: 금관교회, 든든한교회, 로마한인교회, 새에덴교회, 성문교회, 성실교회, 성일교회, 수정교회, 승동교회, 시온소교회, 신길교회, 신천교회, 신촌교회, 안암 제일교회, 양곡교회, 왕성교회, 장위제일교회, 주안교회, 창대교회, 청주주님의교회, 충신교회. Each entry includes the church name, pastor's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세기연 제 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5)

세상에 참 많은 소리가 있다. 특별히 2020년 한 해, 2019년이 남기고 간 코로나바이러스의 대 유행으로 여기 저기 곳곳마다 탄식소리가 들려온다. 아파하는 신음소리는 물론이고, 치료와 방역에 힘쓰는 수고로운 소리도 들려온다. 언제가 될지는 그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지만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제약회사와 연구진의 소식도 들리며, 전례 없는 사태에 힘겨워 하는 일터와 사업장의 소식도 들린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놓인 것 같다. 모일 수 있는 곳이라고 해봐야 아파서 가야 하는 병원이든지, 파지고 보면 또 하나의 격리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집과 같은 거주지 밖에는 없다. 공연장, 학교..... 시나브로 교회 예배당마저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아니 구성원들과 이웃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지 말 것을 권장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관객 없는 공연장에서 아름다운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 학생 없는 학교에서는 학자지걸 뛰어 노는 소리들이 들리지 않는다. 교인들이 모이지 못하는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잦아드는 것만 같아서 슬프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만든 새로운 소리들은 그렇게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듯하다. 지금의 모든 소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필터를 거쳐서 들리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떤 영역도 코로나바이러스 소식에서 자유로운 분야가 없다. 심지어 우리 각 사람의 얼굴에 씌워진 마스크도 모종의 필터가 되어, 우리 서로의 소리를 부자유스럽게 만들어 버린다.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나은 건지도 모르겠다. 말 그대로 침묵하는 것이 금과옥조 같은 미덕이 된 것 같다.

그렇게 점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영검결에 주어진 뉴노멀 생활패턴에 적응해가다보니, 꼭 침묵을 배우게 되는 것 같다. 말없이 있는 것을 배운다기보다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을지라도 듣게 되는 무성의 소리가 있음을 배우는 것이다. 본래 잘 들리지 않는 소리이지만 육성으로만 들리

지 않을 뿐, 영혼의 귀를 열 때, 그 어떤 소리보다 우렁차게 메아리치는 소리가 있다. 아픔의 소리들, 막막한 소리들, 그 소리들 저 너머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음을 배우는 것, 바로 거기에 믿음의 진보가 뒤따르는 그런 경험을 하는 요즈음인 것 같다.

앤드 슈사쿠의 '침묵'은 그런 의미에서, 소리 없는 글말로 적혀진 예수님의 물어 오심처럼 들려지는 소설이다. 근대화 과정의 일본을 배경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배경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된 선교사들의 모습을 소설 '침묵'은 그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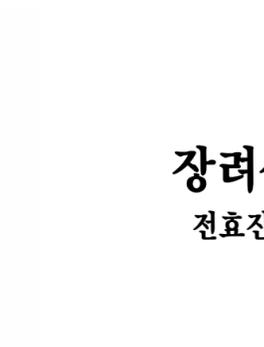


내고 있다.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파송된 포르투갈의 예수회 페레이라 크리스토프 신부가 배교를 맹세했다는 소식, 그 믿기지 않는 소식을 접하고 페레이라 신부의 제자였던 세바스티앙 로드리고 신부가 일본으로 직접 발걸음을 옮기는 여정은 선교사로서의 부르심, 즉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은 말을 걸어오신다. 사실상 말을 거는 주체는 로드리고 신부 한 사람이다. 로드리고는 자신의 선생님이었던 페레이라 신부의 배교를 확인하기 위해 물음표를 갖고 일본을 향한다. 그리고 거기에 서 로드리고 신부는 새로운 질문들을 생산해낸다. 전파된 복음을 순수하게 지켜가는 거주민들의 신앙생활을 목격하였고, 반면에 그들을 추격하고 색출하여 잔혹하게 고문하면

서까지 배교를 강요하는 일본인 이노우에의 맹렬한 활극을 목격한다.

예수님의 성화를 그저 사뿐 스러빠고 지나가라는 배교의 갈림길에서 로드리고 신부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질문을 품게 된다. 그것은 이제껏 자신이 배워왔던 전통적 신앙의 도그마와, 생사의 경계에 도달한 철나의 프락시스 사이에서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존적 질문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로드리고 신부가 생산해내던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 속의 질문들은 그가 성화 속에 있는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성화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서 로드리고에게 되물으시



장려상/ "침묵"

전효진 (아틀란타한인교회 사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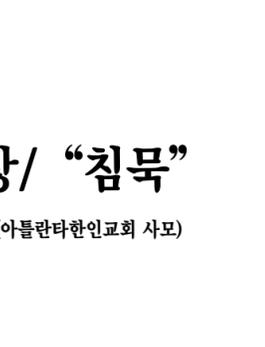
는 질문이기도 했다. 물론 들리지는 않는다. 침묵 속의 질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말을 걸어오게 하셨다. 거주민인 기치지로라는 인물은 끈질기게 신앙과 배교의 경계를 넘나드는 가벼운 인물이다. 한 때는 로드리고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를 청하며 이전에 그리스도교를 배교하고 신앙의 동지들을 배신했던 과오를 뉘우치는가 하면서도, 또 다시 죽음의 경계를 맞닥뜨리는 순간 쉽사리 배교, 배신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등장인물로서 기치지로는 침묵하며 물음을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마치 모든 것을 다 드린 듯 충성을 맹세하지만 금세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오면 변절하고 말았던, 2천년전 유월절 배신자 배드로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로드리고 신부가 마침내 마주하게 된 페레이라 신부도 매한가지다. 기치지로를 능가

하는 듯, 현실을 간파한 신지식인의 삶으로 타협하여, 이성의 안락을 누리는 번지르르한 페레이라의 모습 속에서, 로드리고 신부는 아겔다마의 심판을 면한 것 같은 새천년 가뭇 유다의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예리한 칼끝처럼 겨누어진 질문들 속에서 로드리고 신부에게도 결국 오래지 않아 침묵하던 예수님의 성화가 발 앞에 다가오게 된다.

고요한 침묵이 깨어지는 순간 여전한 정적 속에서 로드리고 신부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 된다. "밧아도 좋다. 밧아도 좋다. 너희에게 밧히기 위해 나는 존재한다." 이 말씀이 로드리고 신부에게는 질문처럼 들려온다. 슬한 선택의 순



간에서 항상 좁은 길, 힘든 결단을 주체적으로 이루어왔던 그였지만 죽음을 앞에 둔 것 같은 순교의 문턱이기 때문이었을까? 그렇게 침묵해 오셨던 예수님께서 응답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소리를 발하신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긴 여정을 다 마치는 무렵이 되어야 로드리고 신부는 하나님의 음성을 명료하게 듣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물어왔던 질문들, 품고 있던 의문들, 어느 때에서야 그 대답을 듣게 될 것인가 밤 깊숙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정작은 대답을 듣고 나서야 늘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간 로드리고가 깨달은 셈이다.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그러나 그 침묵은 침묵이 아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 지금도 질문하고 계신다. 배교 아닌 배교 행위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그 순간 밧아도 좋다고, 가뭇 유

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요13:27)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소설 '침묵'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답을 찾자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고 과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침묵 속에 큰 소리로 묻고 계셨다. 밧히기 위해 존재하는 나를 밧아도 좋은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 계시는 것이다. 이미 수도 없이 밧혀진 성화 속 예수님의 외마디가 '침묵' 속에서 유독 크게 읽혀지는 대목이다.

2020년이 다 가도록 아직도 잡히지 않은 감염병 사태 속에서 나 역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 비록 고통스런 병에 걸려 생사의 기로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밧는 것과 같은 마음 아픈 결단을 맞닥뜨리지는 않고 있지



만, 그보다는 한참 모자란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사노라면 구름 뒤에 숨으셔서 손 놓고 계신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나날들이다.

'주여! 도대체 언제야 이 침묵을 멈추고 말씀하시렵니까. 얼마나 더 인간들이 슬러져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지 그 때까지가 참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전복되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믿어지지 않으니, 주여!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소서!' 하는 기도가 탄식처럼 흘러나온다. 어쩌면 로드리고 신부의 심정이 이렇지 않았을까?

그러나 '침묵'을 읽고 나서 조금은 알 것 같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이다. 성화 속에 갇혀 침묵하시던 예수님 얼굴의 입술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시다는 소박한 깨달

음 같은 것이다. 한 번도 단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리어 묻고 계신다. "밧아도 좋다. 아니 원망해도 좋다. 버려도 좋다. 나는 밧히기 위해 존재하고, 너의 원망을 듣기 위해 존재하고, 버림 받아 십자가에 죽기 위해 존재하는데, 그 무엇도 나는 두렵지가 않은데... 너는 이제 무엇을 하려느냐?"

요컨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침묵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우리의 눈과 귀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다.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질병 하나라도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앓고 마는 한계를 지닌 인간이 아니던가. 그런 우리가 눈으로도 귀로도 아닌 영혼의 눈과 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사랑 자체인 하나님의 존재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다. 혼란한 세상이 연신 소음처럼 뿜어대는 성격의 소리들 대신 비록 침묵 같은 소리 일지라도 성령의 조명 아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는 그 순간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육성이 들려지게 된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 앞에 주어진 많은 질문들은 힘을 잃게 되는 법이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 그 가운데 우리는 선택하는 모든 것들을 때로는 연약함마저도 사랑하시어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음에 감사한다.

어려운 때에 나아가 이보다 더 어려운 때에도 커다란 침묵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행진을 기대한다. 그리고 그 커다란 침묵의 행진에 발맞추어 대열을 이탈할 듯이 위태로운 내 영혼을 끝까지 견인하시는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고 전진하련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겸손히 소망하며 침묵 속에 더욱 크게 들리는 주님의 소리를 잠잠히 청종하면서 말이다.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through June 30 of 2020)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Exam Subjects

- a)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b)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Genesis 22:1-19 (2) NT Exegesis Text : Matthew 5:1-12
- (3) Thesis Topic : Evaluate the "Online Worship Service" from the perspective of Reformed Theology
- (4) Sermon Text : James 5:7-11 / Amos 8:11-14
-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
 -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①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②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 ③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④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⑤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l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①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②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 (Ex. SunghoonChoOTExegesisPaper.pdf)
 - ③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 c) Oral Interview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21.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21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b)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c)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5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8-21, 2021).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Exam Date and Place

- a) Dates : May 11(Tue)-12(Wed), 2021
- b) Place : Eastern Region: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Rev. Seoung Kook Ki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 Western Region: Dae Hwang Korean Church(Rev. David Y. Kwon) 15411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Accompanying Documents

- a)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through June 30 of 2021.
- b)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c)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d)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e)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f)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g) Fee: \$10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

Miscellaneous Information

- a)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1-12, 2021) through Rev. John Y. Song
- b)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Submit To

Rev. John Y. Song
Address : 1641 W. 185 th St. , Gardena CA. 90248
Cell : (818) 282.0112 E-mail : kapcpastor@gmail.com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a)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Kim Jae Ho (646) 270 5987 / ezrakim59@hotmail.com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John Y. Song (818) 282.0112 E-mail : kapcpastor@gmail.com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조문휘 목사
서 기 : 이준우 목사
고시부부장 : 김재호 목사
고시부서기 : 송일용 목사